

2026년 01월 13일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ES 2026, AI가 현실이 된 순간

경제 김유미 helloym@kiwoom.com

반도체 박유악 yuak.pak@kiwoom.com

자동차 신윤철 younchul.shin@kiwoom.com

전기전자/디스플레이 김소원 sowonkim@kiwoom.com

미국주식 김승혁 ocean93@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RA 조준형 jun59057@kiwoom.com

RA 권용일 kwonyy@kiwoom.com

RA 김종현 bellstring@kiwoom.com

Innovators
Show Up



CES 2026, AI가 현실이 된 순간

올해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AI의 현실화'였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적 상상을 넘어, 일상과 산업 현장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온디바이스와 에이전틱 기술을 거쳐 '피지컬 AI'로 진화했으며, 로봇, 자동차,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와 물리적 세계의 결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처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하나의 통합 생태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조, 물류, 의료 등 전 산업의 구조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드웨어의 부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센서, 배터리 등 실물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 전환은 고용 불안, 기술 격차 확대 등 부작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거시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 경쟁력은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조 기반과 인프라 구축 역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CES 2026은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 AI 전환기가 실질적인 경제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CONTENTS

Part I CES 2026 개요 & 기조연설 p.04

Part II CES 2026 핵심 테마와 시사점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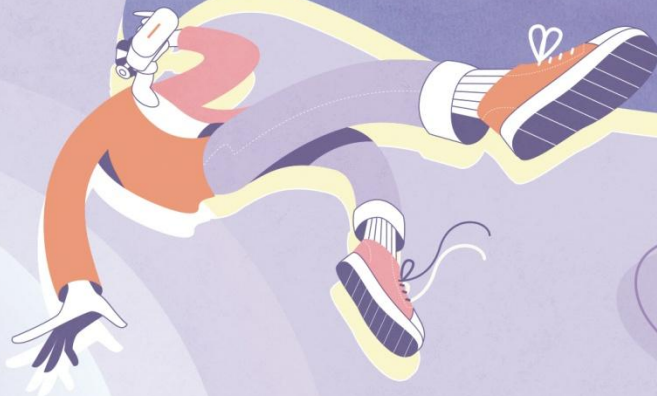
Part III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CES 2026 p.36

① 반도체

② 전기전자/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미국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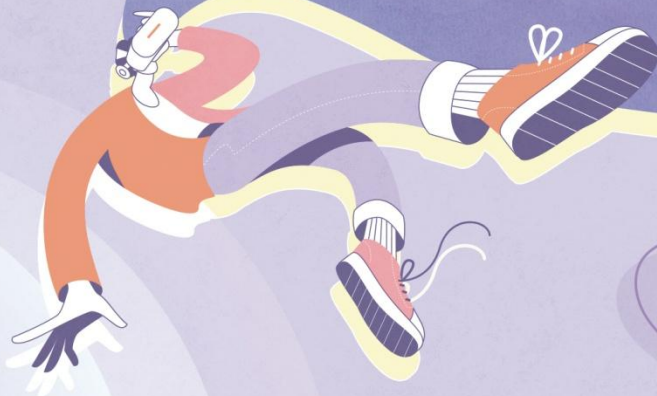


Part I

CES 2026 개요 & 기조연설

| 경제 김유미 helloym@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01

CES 주요 트렌드 및 혁신 제품 변화 (2020~2026)

- ✓ 연결성의 확장: 과거에는 단순한 기기 간 연결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5G와 Io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 ✓ 모빌리티의 확장: 단순한 자율주행차를 넘어 존디어(John Deere)의 농기계, 해양 모빌리티, 도심 항공(UAM) 등으로의 영역 확대
- ✓ AI의 내재화: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기기 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로의 전환,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의 발전

CES 핵심 테마 및 제품

	메인 테마 (Main Theme)	혁신 제품 및 기술 (Key Products)	특징 및 의미
2020년	Smart Mobility	소니 Vision-S (전기차), 삼성 '볼리'	가전 및 IT 기업의 자동차 시장 진출 본격화
2021년	디지털 헬스, 로봇	LG 롤러블폰, 삼성 제트봇 AI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 및 홈코노미 확산
2022년	메타버스, 로봇, NFT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현대차 PnD 모듈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메타모빌리티 비전 제시
2023년	지속가능성 & Web 3.0	존디어 자율주행 트랙터, BMW i Vision Dee	환경 보호와 인간 중심 기술의 부상, 모빌리티 기술의 지능화
2024년	AI Everywhere, On-device AI	삼성 투명 Micro LED, 폭스바겐 ChatGPT 탑재차	온디바이스(On-device) AI의 대중화, 다양한 하드웨어에 AI 내장 본격화
2025년	AI Agent, SDV	엔비디아 COSMOS, 삼성 AI 에이전트 가전	AI가 응답을 넘어 상황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
2026년	Physical AI, Smart Mobility, 공간컴퓨팅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인용 항공 모빌리티	AI 전환(AX)의 실현: AI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단계로 진입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CES 2026 개요 (1)

- ✓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CES 2026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
- ✓ 2025년까지는 AI가 가전, 자동차 등 개별 제품에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기술이 현장에 등장해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로의 진입
- ✓ AI는 기기 간 연결을 넘어 도시와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을 아우르는 지능형 네트워크로 진화, 양자 컴퓨팅·공간 컴퓨팅·차세대 모빌리티가 AI 중심의 통합 생태계로 융합되는 흐름으로 이어짐

CES 2025 vs 2026 비교

	CES 2025	CES 2026
핵심 슬로건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 (몰입과 연결) 사람과 기술을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며 뛰어들자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
메인 테마	Everywhere AI (AI의 보편화 및 일상화) ★ AI, 로봇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라이프, 지속가능성, 전력/에너지	Physical AI & Intelligence Fusion(피지컬 AI와 지능의 융합) ★ AI, 로봇틱스,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생산성 향상, 스마트홈 등 다양한 영역에 융합
핵심 기술	- 온디바이스 AI: 클라우드 의존 없이 독립 구동 -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 디지털 헬스케어: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중심	- 에이전틱 AI (Agentic AI): 스스로 행동하는 AI - 양자 컴퓨팅: 연산 한계 돌파 - 범용 휴머노이드: 가사/산업 로봇의 실제 투입
신설/확대 분야	- 뷰티/패션 테크, 펫 테크 - 인간 안보 및 지속가능성	- CES 파운드리(Foundry) 신설 : AI, 블록체인, 양자기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전문 플랫폼 - 우주 및 공간 컴퓨팅, 여성 건강
전략적 의미	"AI 비전의 구현": AI 기술이 내장된 제품을 통해 사용자가 기술에 몰입하는 경험 실현	"AX(AI 전환)의 실질적 성과": AI를 기반으로 로봇, 양자, 모빌리티가 결합되어 비즈니스 난제를 해결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CES 2026 개요 (2) 주요 주제

- ✓ 올해 CES는 '가능성' 제시를 넘어, 실제 구현 제품과 상용화 솔루션 중심의 전시로 구성
- ✓ 피지컬 AI 헬스테크, 경험 중심 모빌리티, 협업형 산업 로봇틱스 등 일상 밀착형 기술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
- ✓ AI,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스마트홈 등 전 분야에서 실제 적용이 강조되었으며, 생성형 AI는 가전, 헬스케어, 자동차,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 통합, 상용화 단계에 진입

CES 2026 주제 (All Topics)

접근성(Accessibility) AI 어시스턴트, 스마트홈 기기 등 접근성 향상 기술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농업, 안전, 포장 등 식품 관련 기술 및 혁신	스마트 홈(Smart Home) 스마트 가전, 홈 IoT, 에너지 효율, 편의성 중심 기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게임 및 e스포츠(Gaming and Esport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등 차세대 게임 경험	우주기술(Space Tech) 위성, 우주 탐사, 통신 인프라 등 우주 관련 기술
오디오 및 비디오(Audio and Video) ✓ 신규 (명칭 변환)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 등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 ✓ 신규 사회적 약자 포함 포용성 / 다양성 중심 기술 추구	스포츠(Sports) 스포츠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 데이터, 웨어러블 등 혁신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Content and Entertainment)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기술 및 트렌드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용 기술 및 트렌드	스타트업(Startups)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무대, 신규 기술, 투자 및 생태계 중심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마케팅 및 광고(Marketing and Advertising) 소비자 행동과 시장을 바꾸는 기술 및 광고 혁신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친환경, 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친환경 소재 및 기술
기업용 테크(Enterprise) ✓ 신규 기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안/인프라를 강화하는 기술	차세대 통신(Next-G) ✓ 신규 (명칭 변환) 5G 이상 무선 통신, 초연결 기술 등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Vehicle Tech and Advanced Mobility)
핀테크(Fintech) 금융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	로봇틱스(Robotics)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자동화, AI 로봇 등	XR 및 공간 컴퓨팅(XR and Spatial Computing) ✓ 신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공간 기반 컴퓨팅 기술
피트니스(Fitness)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헬스 등 건강 및 피트니스 관련 기술	스마트 커뮤니티(Smart Communities) ✓ 신규 (명칭 변환) IoT, AI, 5G 등을 통한 스마트 도시 및 커뮤니티 구현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CES 2026 개요 (3) 참여국가와 기업

- ✓ CES 2026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4,500여 개 기업이 참가.(CES 2025: 158개국, 4,500여 개 기업, 관람객 14.2만 명)
- ✓ 한국의 압도적 혁신 역량: CES 2026 혁신상에서 전체 수상 기업 284개 중 168개사(59.2%)가 한국 기업으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특히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 모두를 한국 기업이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CES 2025에서는 131개 기업 수상, 점유율 45%)

CES 2026 참가한 주요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 그룹사

기업	CES2026 전시 및 발표 내용	기업	CES2026 전시 및 발표 내용
구글 (미국)	- AI, 오디오, 피트니스, 차량 기술, XR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 - 안드로이드/제미니(Gemini) 생태계 확장: AI 에이전트가 가전과 차량에 통합되어 깊숙이 통합된 일상 시연	삼성전자	'삼성 테크 포럼' 개최: AI, 가전, 디자인 중심 전문가 패널 토론 - AI 에이전트/삼성SDS AI Full Stack: 단순 응답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솔루션 공개
아마존 (미국)	- 알렉사(Alexa) + 생성형 AI: 스마트홈의 중앙 컨트롤러로서의 AI 비전 제시 - 클라우드(AWS) 기반의 물류·제조 AI 솔루션 강화	LG전자	'LG 월드 프리미어' (주제: 당신에게 맞춘 혁신): 제품 간 연동을 통한 '공감지능' 진화 모습 소개 - 투명/무선 가전 라인업 확대
엔비디아 (미국)	'피지컬 AI(Physical AI)'의 정점: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을 위한 'GR00T' 프로젝트 및 차세대 GPU 로드맵 - 에이전트 AI 구축 솔루션 전시	현대차 그룹	'Partnering Human Progress': 인간-로봇 협업 생태계 구축 전략 -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최첨단 로봇틱스 실물 시연 및 체험형 전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을 가속화하는 AI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대거 공개 - 기업용 메타버스 및 제조 AX(AI 전환) 파트너십 발표	두산그룹	- 두산로보틱스: 물리 접점 기반의 AI 로봇 솔루션 소개 - 두산밥캣: AI 기반 무인 건설 기계 및 차세대 운영자 디스플레이 체험
퀄컴 (미국)	- 차세대 AI 칩셋과 스냅드래곤(Snapdragon) 플랫폼의 신제품을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리더십을 강조 -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ZF 등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사와 SDV 아키텍처 및 자율주행(ADAS) 관련 협업을 발표	한국전력	- CES 최초 참가. AI 기반 전력망 운영 기술 기술과 직류 배전 기술 소개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차세대 배전망 관리(ADMS), SEDA (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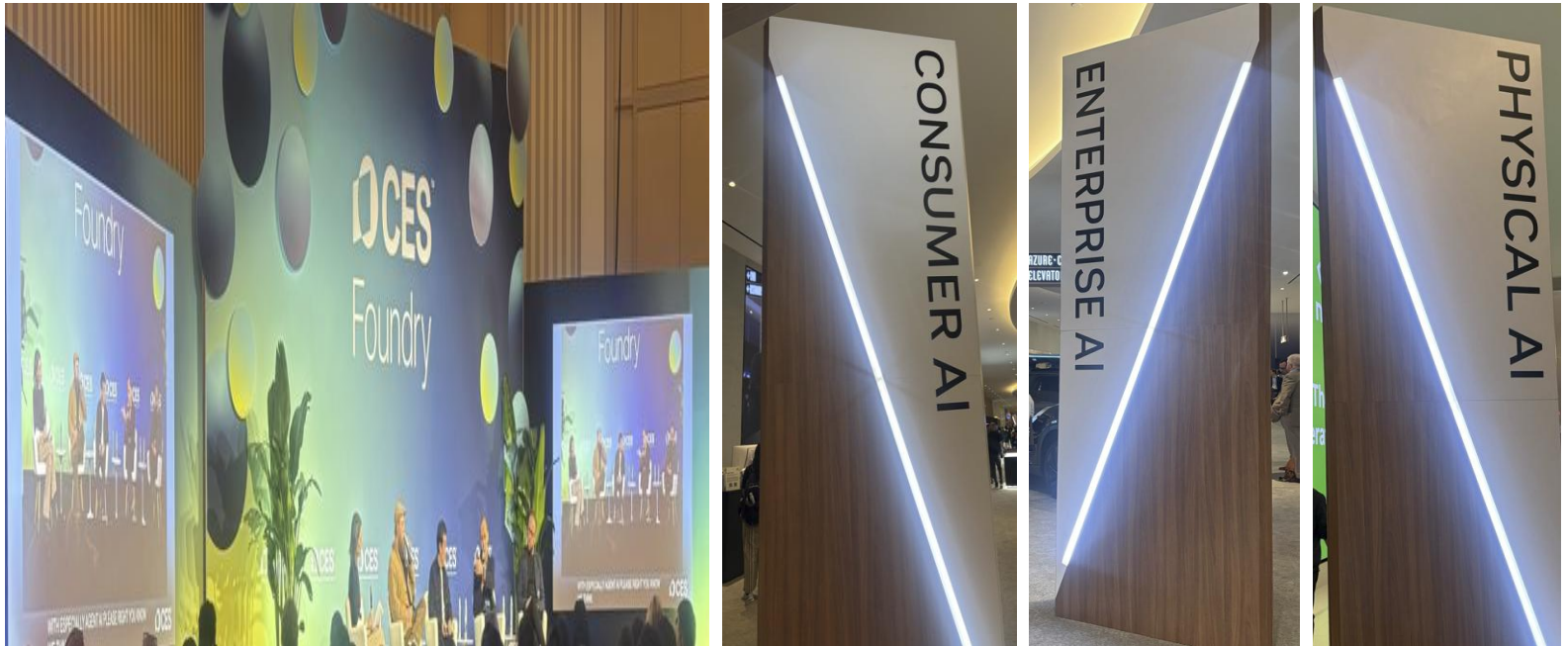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CES 2026 개요 (4) 신규 프로그램(CES Foundry) 권역

- ✓ CES 2026의 가장 큰 변화는 'CES 파운드리(CES Foundry)'의 신설
- ✓ AI, 블록체인, 양자 기술을 통합하는 차세대 기술 융합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혁신 플랫폼으로 CES가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신설된 본 프로그램에 엔비디아가 대규모 전시 및 행사 공간을 구성해 주목

CES 2026 신설 CES Foundry 권역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2026 최고혁신상은 총 30개 부문에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이 15개를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과
 - 2025년에는 전체 292개 혁신상 중 한국 기업 제품이 129개로 약 46%를 차지, 2026년에는 총 338개 수상작 중 208개(61.5%)로 점유율 증가
 - CES 2026 혁신상 총 36개 카테고리 중 올해는 에듀테크, 엔터프라이즈 테크, 영화 제작 및 유통, 공급 및 물류, 여행 및 관광 등 5개 신규 분야 신설
- ✓ 혁신상 분야는 기존의 가전 중심에서 서비스 및 B2B 산업 전반으로 확장, 주요 영역은 오디오·비디오, 차세대 통신, 스마트 커뮤니티 등으로 다변화
- ✓ 특히 전년 대비 출품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로봇틱스(+32%), 드론(+32%), 인공지능(AI, +29%) 등으로, CES의 기술 중심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CES 2026 혁신상 특징

특징	주요 내용
피지컬 AI의 전면 부상	• 개념의 확장: AI가 화면 속 정보 분석을 넘어, 로봇·드론 등과 결합해 물리적 노동과 조작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 • 주요 사례: 산로보틱스의 'Scan&Go'(자율 이동 로봇), 오시코시의 'LG 봇 리프트'(자율 건설 로봇) 등이 실제 현장 적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점수를 획득
모든 산업의 테크화 (B2B 및 서비스 산업 확장)	• 산업 경계의 붕괴: 신설된 5개 분야 중 '영화 제작'을 제외한 교육, 기업, 물류, 관광 등 4개 분야가 B2B 산업으로 분류 • 트렌드 변화: "모든 기업은 테크 기업"이라는 기조 강화 (기존 소비자 중심의 B2C 제품에서 B2B 기술 중심으로 전환) • 기술의 실용성: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교육·물류·관광 등 전통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들이 대거 수상
K-혁신, 역대 최고 성과	• 압도적 비중: CTA 발표 최고혁신상 30개 중 15개(50%)를 한국 기업이 수상 • 스타트업의 활약: 전체 한국 수상 기업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삼성·LG 등 대기업뿐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입증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ES 2026 최고혁신상 기업

기업명	제품/기술명	수상 부문	비고
삼성전자	S3SSE2A (양자 보안 칩)	사이버보안	하드웨어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한 보안 칩
LG전자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미징 (Imaging)	투명OLED 디스플레이TV
두산로보틱스	Scan&Go	인공지능(AI)	AI 기반 자율 주행 모바일 로봇 시스템
삼성SDI	SDI 25U-Power	건설&산업기술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
네이션에이 (Nation A)	뉴로이드 플레이메이커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AI를 활용한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
스튜디오랩 (StudioLab)	젠시 스튜디오	XR 및 공간 컴퓨팅	AI와 로보틱스, XR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오프라인 리테일 솔루션
익스프로트	페리스피어	헤드폰 & 개인 오디오	시각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헤드폰
망고슬래브	Nemonic Dot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 앱	휴대용점자라벨AI 프린터,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점자 언어를 생성
엘비에스테크(LBStech)	MaaS-Bridge	여행 & 관광	AI 기반 차량 승·하차 동선 지원 플랫폼
크로스허브 (CrossHub)	Financial Passport by IDBlock and B-Pay	핀테크	IDBlock 및 B-Pay 기반 금융여권 신원 확인 및 간편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 위변조 확인
둠둠(DummDumm)	Hydro Hawk	스마트 커뮤니티	드론 기반의 수질 관리 시스템
시티파이버 (CT5 INC.)	Zone HSS1	인공지능(AI)	음성 중심의 AI 웨어러블 디바이스, 화면없이 음성·텍스트·영상 인식을 통합해 사람과 AI가 대화하듯 상호작용하도록 설계
딥퓨전AI	RAPA	인공지능(AI)	레이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전방위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인지 시스템, 자율주행 분야 솔루션 기술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CES 2026은 AX(AI 전환)의 실체를 보여준 행사로,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Physical AI'에 초점
- ✓ AI는 단일 기술을 넘어, 전 산업을 연결하는 공통 인프라로 자리매김
- ✓ 반도체(AI 컴퓨팅)-산업장비-PC-콘텐츠 산업까지 4개 산업군 CEO가 함께 무대에 올라 AI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것도 주목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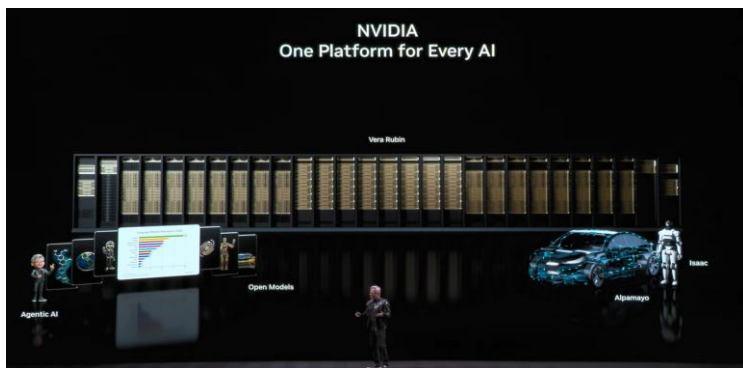
CES 2026 주요 기조연설자 분야 및 내용

기업명 / 연사(직함)	분야	주요 발표 주제 / 특징
AMD - Lisa Su(CEO), 오프닝 키노트	미국 반도체 기업	• 공식 주제: "How AI is Changing the World"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핵심 발표: 차세대 서버용 CPU인 '베니스(Venice)'의 실물 공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강력한 하드웨어도 발표 • AMD는 OpenAI의 AI 인프라 구축과 블루 오리진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핵심 칩을 공급하며 강력한 기술 파트너십 생태계를 입증 → 우주/의료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장
하바스 (Havas) - 야닉 볼로레(CEO)	프랑스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기업	• 공식 주제: "Human-AI Synergy" (인간과 AI의 시너지) • 핵심 발표: 광고와 마케팅 산업이 AI를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 • AI 에이전트 플랫폼 '아바(Ava)' 첫 공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에이전트 기능을 결합해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고, 캠페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 극대화 → AI를 활용하는 에이전시가 비(非)AI 에이전시를 대체할 것
레노버(Lenovo) - Yuanqing Yang(CEO)	중국계 다국적 테크 기업	• 공식 주제: "Smarter AI for All" (모두를 위한 더 스마트한 AI) • 핵심 발표: 개인용 AI 에이전트 '키라(Qira)' 공개 (PC-폰-인프라 연동 능동형 AI) • 엔비디아·AMD 등과 협력한 '기가와트 AI 팩토리'를 발표, 개인부터 기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체 AI 모델 운영이 가능한 서버 인프라를 제공
캐터필러(Caterpillar) - Joe Creed(CEO)	미국 중장비 제조기업	• 공식 주제: "Advancing Industrial AI: From Vision to Reality" (산업용 AI의 진보: 비전에서 현실로) • 핵심 발표: '켓 AI 어시스턴트' 공개 (사무실부터 장비 조종석까지 아우르는 대화형 산업용 AI 솔루션) • 엔비디아(NVIDIA)와 협력해 '지능형 중장비 생태계'를 구축. Jetson Thor 플랫폼을 탑재해 실시간 AI 추론과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 현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커넥티드 작업장 솔루션 제공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CES 2026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기조연설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업으로 진화했음을 시사. 칩부터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AI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 전략이 핵심 메시지로 강조
- ✓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Partnering Human Progress: AI)'를 주제로, 이동 수단을 넘어 인류와 공존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

엔비디아(NVIDIA) - 단순 칩 제조에서 AI 전체 시스템 구축으로 도약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보틱스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 AI 인프라의 정점: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의 본격 양산과 매출 전망 상향을 통해 AI 하드웨어 시장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고
- 현실로 나온 AI: 물리 법칙을 학습한 '코스모스' 모델과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통해 가상 세계를 넘어선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시대를 선포
- 그래픽 기술의 진화를 강조하며, 게이밍 및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기술적 초격차를 재입증

자료: NVIDI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차 그룹 - 아틀라스 등장, 현대차의 AI 로보틱스 대전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개 및 AI 로보틱스 비전 발표

- 현대차그룹,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Atlas)' 최초 공개.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고도화된 AI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 개발을 발표
- 2028년부터 제조 공정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연간 3만 대 규모의 양산 기지 구축을 통해 상용화에 돌입. 물류·에너지·건설 등 그룹 전반에 AI 로보틱스를 확대하고, 로봇 운영 표준 플랫폼도 함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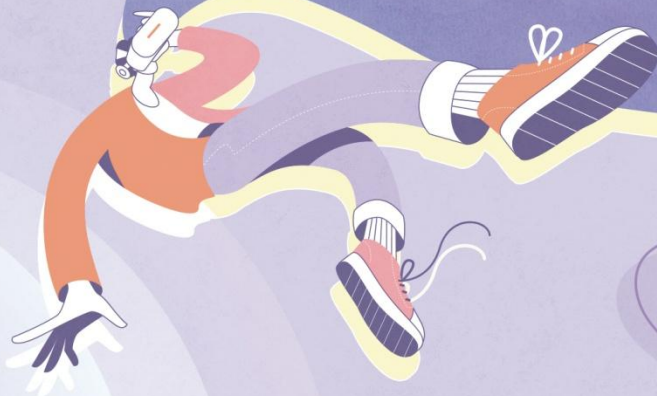
자료: HyundaiWorldw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

CES 2026 핵심 테마와 시사점

| 경제 김유미 helloym@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01 CES 2026 키워드 : AI, 기술을 넘어 현실로

- ✓ CES 2026의 핵심은 'AI의 현실화' 화면 속 지능을 넘어, AI가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
- ✓ 분산된 AI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협력이 시작되며, 산업 간 경계는 빠르게 허물어지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데이터·경험 중심으로의 진화 가속화
- ✓ 2024~2025년 생성형 AI의 확산을 지나, 2026년은 AI가 로봇의 몸을 입고 현실에서 직접 작동하는 'AI 전환(AX)'의 본격 구현 시점으로 주목
- ✓ 이 과정에서 AI의 상호운용성과 생태계 구축 기술이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차세대 기반 기술로 '양자 컴퓨팅'도 조명
- ✓ CES 2026은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AI·모빌리티·디지털 헬스·에너지·Web3 등 주요 기술이 산업 인프라 수준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시험

CES 2026 핵심 테마

핵심 테마	핵심 메시지	키워드
인공지능 (AI)	AI는 하나의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인프라 기술로 진화	서비스 중심, 상호운용성, 개방형 모델
로보틱스 (Robotics)	지능형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 속으로 확산	로봇 진화, 지능형 기능, 인간 협업
모빌리티 (Mobility)	생활·이동·경험을 아우르는 통합형 모빌리티 플랫폼의 확장	경험 중심, SW 플랫폼, 이동의 진화
디지털 헬스 (Digital Health)	초개인화된 건강 관리와 AI 기반 치료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확대	웰니스, 실시간 건강 관리, 치료 확대
양자 (Quantum)	AI와 결합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차세대 기술로 부상	양자 컴퓨팅, 연산 능력 향상, AI 시너지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AI (1) : 산업과 일상에 스며든 AI

- ✓ CES 2026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을 넘어, AI가 현실 세계에 완전히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년이 될 전망
- ✓ 핵심 AI 트렌드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온디바이스 AI, 라이프 케어, 인프라 테크 & SDV로 요약. AI는 물리 세계 개입, 자율 실행, 기기 내 연산, 삶의 질 향상, 산업·모빌리티 융합으로 현실을 변화

CES와 AI 활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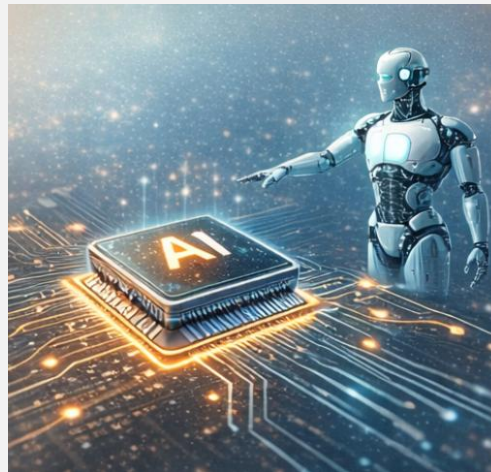
2024년 AI의 일상 적용

개별 기기 중심, 제품에 AI가 탑재되어 있는가?



2025년 AI의 자율적 실행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2026년 AI의 통합 운용

AI 생태계, AI가 서로 협력하고 통합적으로
작용하는가?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AI (2) : 가능성에서 실행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진화

- ✓ CES 2026은 AI 기술의 '가능성' 단계를 지나,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실행)를 증명하는 단계로 진입
- ✓ AI 기술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발전은 피지컬 AI(로봇)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구현된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건강과 라이프 케어를 스스로 관리하는 생태계로 확장

CES 2026 AI 기술 트렌드 요약

핵심 키워드	주요 특징 및 기술	기대 효과 및 실생활 변화
피지컬 AI (Physical AI)	- AI가 화면 속 대화(챗봇)나 이미지 생성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로봇의 몸을 입고 물리적 세계를 직접 이해하고 조작하는 단계로 진화 - 로봇 공학과 AI의 결합, 멀티모달 인식 기술 강화	인간의 육체노동 보조, 제조·물류 현장의 자동화 완성
에이전틱 AI (Agentic AI)	- AI가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 도구에서 벗어나,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 - 자율적 의사결정 및 목표 수립,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복잡한 업무(비서, 마케팅 등)를 스스로 수행하는 지능형 대행자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고성능 AI 모델을 구동하는 기술이 완성 단계로 진입 - 고성능 칩셋(Intel, AMD 등), 로컬 거대언어모델(sLLM)	보안 강화, 초저지연 반응,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지능형 가전 삼성전자의 제미니(Gemini) 탑재 가전
라이프 케어와 디지털 헬스 심화 (Life Care)	- AI는 이제 단순한 건강 측정을 넘어 진단, 예방, 치료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의사' 역할을 지향 - 비침습적 센싱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건강 진단 AI	웨어러블 기기와 AI가 결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식단, 운동, 정신 건강 관리를 실시간으로 제공, 수면 및 만성 질환의 선제적 관리와 예방
인프라 테크 &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 AI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기술이 주요 의제로 부상 - 전력 수요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관리 AI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력 부족 문제 해결, 자동차를 넘어서는 이동형 생활 공간의 탄생(AI가 주도하는 공간 컴퓨팅의 핵심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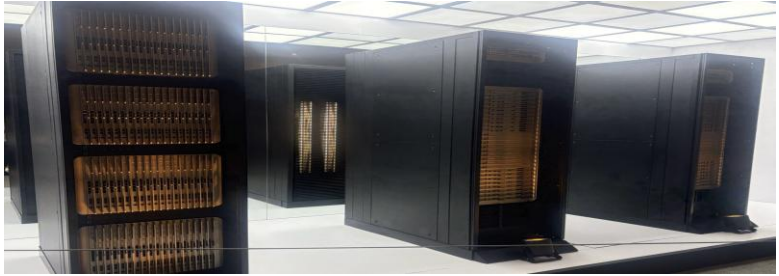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AI (3) : 활용 패러다임 전환, 빅테크의 전략 변화

- ✓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CES 2026에서 데이터센터용 초고성능 AI 칩부터 스마트폰, TV 등 일상 기기에 적용된 저전력 온디바이스 AI까지, 하나의 구조처럼 연동된 기술을 전시
 - AI 활용은 이제 클라우드 중심에서 벗어나, PC·웨어러블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중심 구조로 전환
 - AI 경쟁의 핵심은 모델의 규모가 아니라, 전력 효율·보안·실시간성·산업 맞춤 활용성 등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

AI(Artificial Intelligence) 빅테크 기업의 혁신

기업/제품	주요 내용	
엔비디아	• CES Foundry에서 자사 주요 제품 전시 • AI 슈퍼컴퓨터 'NVIDIA DGX Spark' 및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NVIDIA Jetson Thor'로 혁신상 수상 • Jetson Thor: 휴머노이드·자율로봇용 AI 슈퍼컴퓨팅 칩으로, 서버급 AI 성능을 로봇 등에 소형·저전력으로 제공	
AMD	• CPU, GPU, 적응형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전시 • AMD EPYC 프로세서, AMD Instinct GPU, Ryzen CPU, Radeon GPU 등으로 구성된 미래형 AI 솔루션 포트폴리오 보유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로봇틱스 (1) 일상 속으로 들어온 지능형 로봇

- ✓ CES 2026을 기점으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협력하는 지능형 파트너로 재정의. 로봇은 정해진 틀 안에서 작동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AI 기반 자율성과 협업 능력을 갖춘 존재로 진화
- ✓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 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지능적이고 유연한 동작이 가능, 형태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하면서 단일 작업이 아닌 복합적 상황 대응이 가능한 범용성을 보유
- ✓ 기존 로봇·기기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CES 2026이 강조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피지컬 AI: 인공지능이 로봇의 신체를 제어해 현실 환경에서 감지-판단-행동을 수행하는 기술)

CES 2026 로봇틱스 트렌드

구분	과거의 로봇 (Pre-2025)	CES 2026 이후의 로봇
기술 기반	- 정해진 알고리즘 기반 - 반복적 제어 중심	- 생성형 AI로 추론 및 창의적 판단 - 피지컬 AI와 자율 학습을 통한 능동 제어
용도	특정 목적용 기계 (예: 청소기, 서빙 로봇)	- 휴머노이드 중심 -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로봇
상호작용 방식	- 버튼, 단순 음성 명령 - 사전 설정된 반응	- 상황 맥락 이해 - 감정 인식 및 주도적 제안 가능
작업 환경	- 주로 공장 내 제한된 공간 - 안전 펜스 내 작동	- 가정, 사무실, 병원, 공사장 등 일상생활 전반 -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개방된 환경
역할	- 단순 반복 작업자 - 기능 중심의 보조자	- 자율 판단형 파트너 - 인간과 협력하며 학습하는 존재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로보틱스 (2) : 로보틱스와의 결합으로 확장되는 AI 활용 범위

- ✓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고도화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부상, 산업 현장은 물론 소비자 일상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장되는 흐름 부각
- ✓ 로보틱스는 전체 기술 혁신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로, 적용 영역이 급격히 넓어지며 산업 자동화 도구에서 인간의 협력자 및 보조자로 진화 중
- ✓ 특히 제조, 물류,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로보틱스 패러다임은 기존의 '범용성'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산업 목적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향후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로보틱스 기업과 제품

기업/제품	주요 내용	
두산 로보틱스의 '스캔앤고 (Scan&Go)'	• CES 2026 최고 혁신상 수상. 산업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AI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Scan&Go)' 기술 공개 • 자율 이동 로봇(AMR) 플랫폼에 협동 로봇과 3D 비전 센서를 결합하여, 대형·비정형 구조물을 스스로 스캔하고 작업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 솔루션 '스캔앤고'의 핵심 차별점은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실행한다'는 점	
중국 Widemount Dynamics 스마트 소방 로봇	• AI 기반 스마트 소방 로봇으로, 화재 현장에서 인력 개입 없이 스스로 탐색, 분석, 자동 대응 및 보고까지 수행 • 중국 기업이 개발했으며, 기존 점검용 로봇에 AI 모듈을 탑재해 초기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 레이더, AI, 센서 기술을 통해 자율적 현장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CES 2026의 모빌리티 트렌드는 AI가 실제로 움직이며 작업하는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기술의 현실 적용이 본격화
 -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집·스마트폰·직장 등 생활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동+생활+경험' 플랫폼으로 재정의되는 중
- ✓ 소프트웨어, AI, 개인화, 생태계가 모빌리티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량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SDV)로 진화 중
 - 무선 업데이트(OTA), 구독 서비스 등 수익 모델이 내장된 차량(SDV)이 본격 상용화
- ✓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를 넘어 물류, 농업, 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매김
 - 도로를 넘어 하늘(UAM)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연결된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도 구체화
- ✓ 이제 모빌리티 업계의 경쟁력은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닌, 모빌리티를 통해 더 나은 디지털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좌우
 -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이 핵심 경쟁력이며, 완성차 자체보다 차량에 탑재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

CES 2026 모빌리티 트렌드

구분	CES 2025	CES 2026
AI의 역할	• "말하는 AI" 중심 : 운전자와의 대화, 음악 추천 등 정보 제공 중심	• "움직이는 AI"로 진화 :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환경 인지 : 짐 운반, 현장 관리 등 피지컬 AI 구현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 기술력 과시 중심 : 무선 업데이트 강조, 스마트폰처럼 진화하는 차량	• 수익 모델 중심 : 기능 구독, 콘텐츠 결제 등 실질적 비즈니스 구현
모빌리티의 개념	• 전통적 이동 수단	• 생활 공간으로 확장 : 차량 내 업무, 건강 관리 등 : 항공 모빌리티 실현 (현대차 Supernal 등)
모빌리티의 범위	• 도로 중심	• 도로 + 공중 + 산업 현장 :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 인프라 중심 생태계 제시
산업용 모빌리티	• 주로 완성차 위주 : 일반 소비자 대상	• 중장비·농기계 등 특수 목적 모빌리티 부상 : 노동력 대체 및 자동화 솔루션으로 주목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모빌리티 (2) :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 ✓ 과거 모빌리티가 배터리·주행거리 등 하드웨어 성능 중심이었다면, CES 2026에서는 차량이 제공하는 ‘경험’이 핵심 가치로 부상
- ✓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인지와 경험을 확장하는 연결이자 플랫폼의 중심축으로 인식되며, 모빌리티는 경험 중심 플랫폼으로 재정의
- ✓ 센서 기반 데이터 축적과 AI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및 산업 현장 자동화를 실현하는 실질적 솔루션들이 다수 공개

모빌리티(Mobility)

기업/제품	주요 내용	
Sony Honda Mobility의 AFEELA 1	• AFEELA는 차량을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SDV 혁신을 강조 • “AI 인터페이스, 고정밀 ADAS, AR 보조, 클라우드 업데이트 등을 통합해 SDV 구조를 강화하고, HERE Technologies와 협업으로 차량의 맞춤형 이동 OS로의 진화를 제시	
Oshkosh의 JLG Boom Lift	• Oshkosh, 산업용 자율 로봇으로 모빌리티 혁신상 수상 • AI와 로봇팔이 결합된 자율주행 작업 로봇으로,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운송·설치 업무 자동화 • 위험 환경에서도 정밀한 위치 조정과 단계별 제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 가능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생성형 AI → 에이전틱·피지컬 AI로 전환 :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AI가 직접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해 케어까지 수행하는 기술로 진화
- ✓ 기록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 건강 수치를 기록하던 기존 웨어러블 중심에서 벗어나, AI가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생태계로 확장
- ✓ 산업 구조의 변화 : 단순 기기 제조에서 → AI 기반 데이터·연결성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예: 웨어러블+AI → 실시간 분석+예측 → 개인 맞춤 헬스케어 확장 → 사용자 대상 세분화)

CES 2026 디지털헬스 트렌드

구분	CES 2025	CES 2026
AI 역할	•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AI : 수면·운동·식단 분석 중심	• 에이전틱 AI 등장: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으로 진화
데이터 분석	•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록·분석	• 초개인화 케어로 진화: 맞춤형 건강 제안 + 의료진 연계 자동화
기기 형태	• 웨어러블 기반 모니터링 중심	• 센서가 내장된 비침습형 기기와 삶에 연동된 형태의 디바이스 확산
적용 분야	• 재활 및 운동 보조 로봇 초기 적용	• AI 헬스케어 로봇이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 대응
기술 수준	• 스마트 워치, 낙상 알림 수준	• 생체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통한 정밀 진단 및 조기 대응
앱/기기	• 명상 앱, 뇌파 측정 장비 등	• 뇌파·심박·스트레스 등을 종합 측정하여 개인 맞춤형 피드백 제공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디지털 헬스 (2) : 웨어러블을 넘어 치료까지, 일상 속 건강관리의 진화

- ✓ CES2026에서는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을 통해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여 주목
- ✓ 디지털 헬스 분야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으로 정밀 치료와 일상적 관리로 영역 확장
- ✓ 과거에는 헬스케어 기기가 생체 신호를 단순히 측정했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

디지털 헬스 (Digital Health)

기업/제품	주요 내용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 : Garmin의 피트니스 스마트워치 Venu4	• 신체를 플랫폼으로 삼는 새로운 생활 운영 체제로 진화한 웨어러블 기기 • 심박·수면·건강 상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웰니스 피드백 제공 • 라이프스타일 로깅 기능을 통해 일상의 데이터를 축적·학습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 : Earflo의 귀 질환 치료 디바이스	• 호주의 Earflo Inc.가 개발한 Earflo는 보디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에서 의료적 치료 및 예방 관리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 이 기기는 어린이 중이염의 원인 중 하나인 음압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용 웨어러블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CES 2026에서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은 더 이상 '미래의 실험적 기술'이 아닌, '산업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평가, 연구 단계에 머물던 양자 기술이 AI·보안·헬스케어·모빌리티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CTA(전미소비자기술협회)는 CES 2026의 핵심 테마 중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CES 파운드리(CES Foundry)'를 신설
- ✓ CES 2026에서 양자 기술은 AI와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라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반 인프라로 정의. 대표 사례로는 삼성전자 S3SSE2A로 업계 최초의 차세대 양자암호(PQC) 보안칩,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적 방향성을 제시

CES 2026 양자 기술 트렌드

핵심 트렌드	주요 내용 및 사례
양자가 AI의 연산 성능 향상	양자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의 학습·추론 속도 및 효율을 크게 향상
GPU + QPU 연결 실현	기존 GPU와 양자 프로세서(QPU)를 연동해 실질적 성능 강화 사례 등장
실험 → 실용 전환, 기업 적용 사례 중심 전시	연구 중심을 넘어, 실제 기업 적용 사례 중심으로 기술 전시 확대, CES 파운드리 신설
클라우드 기반 접근성 확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
양자 보안 기술 확산	양자 내성 암호 등 보안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 적용 중 : 금융, 통신, 공공에 실제 적용된 장비 출품
정밀 센싱 활용	양자 정밀 측정 기술을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산업에 활용해 정밀도 향상: 자율주행 낙상 감지, 의료용 정밀 센서 적용

자료: 기사정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

양자(Quantum) (2) AI·보안으로 확장되는 CES 2026의 양자 혁신

- ✓ CES 2026에서 삼성전자의 양자 보안 칩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금융권 보안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 ✓ 양자 금융(Quantum Finance):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해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PQC)의 도입이 금융사가 주도해야 할 핵심 보안 과제로 부상
- ✓ 보안 내재화 및 거버넌스: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AI 에이전트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리스크 통제 체계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

삼성전자 양자 보안 칩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영국 양자 컴퓨터 기업 켄티엄(Quantinuum)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3

CES 2026 시사점 –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 AI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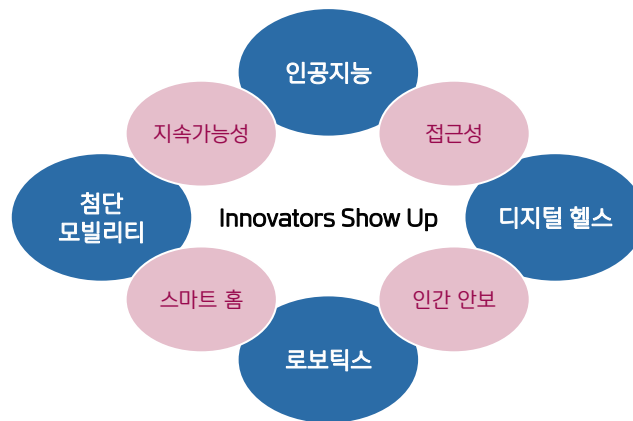
- ✓ 2024~2025년이 생성형 AI의 비전을 제시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AI가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물리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원년으로 평가
- ✓ AI는 단순히 대화하는 기술을 넘어, 로봇틱스와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조작하는 '피지컬 AI'로 진화, 모든 산업의 중심 기술로 부상
- ✓ 산업 연결 측면에서는 제조,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 로봇과 AI가 결합해 무인화와 운영 효율을 실현하는 'AX(AI 전환)'의 실증 사례들이 다수 등장
 - 단순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서비스, 헬스케어, 소매, 물류 등 전 산업에서 인간-로봇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경쟁의 시작을 시사
 - 금융권에도 시사점을 제공. 단순 챗봇을 넘어선 AI가 사용자의 소비 패턴과 시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조정하는 '금융 에이전트' 서비스에 주목

AI 진화

단계+	기술 명칭 (AI Category)	주요 특징 및 적용 사례
1단계	2012 ALEXNET	이미지 인식 모델로, 현대 딥러닝의 출발점
2단계	인식형 AI (PERCEPTION AI)	음성 인식, 딥러닝 추천 시스템, 의료 영상 분석
3단계	생성형 AI (GENERATIVE AI)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자동 생성
4단계	에이전트 AI (AGENTIC AI)	코딩 어시스턴트, 고객 서비스, 환자 관리 등 상황 판단·실행형 AI
5단계	물리적 AI (PHYSICAL AI)	자율주행 자동차, 범용 로봇틱스 등 실제 환경 내 동작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ES2026 핵심 키워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4 피지컬 AI가 여는 하드웨어 자본지출(Capex) 시대

- ✓ CES 2026 로봇 전시에서 중국 업체 비중이 절반 이상(약 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산업 자동화 로봇 (공장·물류), 가정용 서비스 로봇, 협동로봇과 같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제품과 솔루션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
- ✓ 이번 CES 2026은 '피지컬 AI'라는 대규모 하드웨어 자본지출 사이클의 시작을 시사, 로봇은 AI가 물리적 실체를 갖는 최종 구현 단계로, 반도체·센서·배터리·정밀 제어기 등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수요를 창출 가능
 - 과거 디지털 전환이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이클은 하드웨어 제조업의 재평가를 동반할 수 있음
- ✓ CES를 통해 나타난 트렌드는 기술 산업이 단순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넘어 제조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

중국 Shenzhen Zhongqing Robotics Technology 로봇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Boston Dynamics, 로봇개형 로봇 Spot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5 AI 전환기, 제조 산업을 재편하는 인프라 혁명

- ✓ 인터넷 혁명은 정보 유통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고, 제조업에는 간접적인 영향
- ✓ AI 전환기는 반도체, 로봇, 엣지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 투자를 동반하며 제조·에너지 산업을 직접적으로 재편. AI는 단일 기술이 아닌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인프라로 작용하며, 공급 측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중
- ✓ 국가 간 경쟁은 기술력뿐 아니라 AI 기반 제조 역량과 인프라 구축 능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인터넷 혁명 vs AI 전환기 비교

구분	1980~90년대 인터넷 혁명기	현재 AI 전환기 (2020s~)
핵심 기술	인터넷, 웹 브라우저, 서버	대규모 언어모델(LLM), Agentic AI, 로봇틱스
주도 분야	소프트웨어·통신 중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중심
하드웨어 역할	PC·서버 등 보조적 역할	GPU·NPU·엣지 디바이스 등 핵심 자산
영향 산업	정보, 통신, 미디어 등 일부	제조, 에너지, 건설, 의료 등 전 산업
제조업 영향	오피스 자동화, ERP 도입 등 간접적	로봇·디지털 트윈·AI 검사 등 직접적 재편
투자 구조	네트워크·플랫폼 중심 소프트웨어 투자	AI 인프라, 반도체, 엣지 장비 등 자본재 투자 증가
성장 기여 방식	정보 유통 효율화 → 생산성 간접 기여	AI 자동화 → 공급 측 생산성 직접 향상
국가 경쟁력 핵심	인터넷 활용력, IT 생태계 구축	AI 기반 제조역량 및 하드웨어 기술력
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화 기반 구축 단계	산업 간 경계 해체 + AI 플랫폼화 가속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6 기술 융합이 만든 산업 경계 붕괴

- ✓ CES 2026은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AI 기반 생태계 및 플랫폼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AI, 로봇, 에너지, 모빌리티 등 이질적인 산업들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줌
- ✓ AI 기반 통합 생태계는 산업 구조 재편의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기술 중심의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흐름이 강화
-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제어', '신뢰성·투명성' 등의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산업 AI의 생태계화와 플랫폼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CES 2026에서 관측되는 산업 경계 붕괴 지점

구분	핵심 변화 방향
에너지-제조-운송의 통합	두산 그룹이 에너지와 로봇을 통합 전시하며 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시사
제조-인프라-운송의 AI 수렴	Siemens의 키노트에서 “제조, 인프라, 운송”을 하나의 AI 프레임워크로 설명한 것은, 그동안 각각 다르게 작동하던 산업들이 이제 AI를 중심으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시사 → 기 다른 산업 분야도 AI를 기반으로 하나의 공통된 방식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의미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경계 소멸	Sony Honda Mobility의 'AFEELA'는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아닌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하며, Doosan Robotics 등의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역시 하드웨어의 가치가 소프트웨어 능력에 종속됨을 시사
공급자-고객 관계의 재정의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협력 관계(파트너십)’와 ‘생태계(에코시스템)’가 중요해졌다는 점이 강조 → Microsoft와 다양한 산업군 기업들의 협업 사례가 이를 뒷받침
규제-기술의 상호작용 증대	산업 AI의 신뢰성, 안정성,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술 개발과 규제 정책이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동시에 진화하는 영역임을 의미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7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AI 통합 플랫폼의 시대

- ✓ CES 2026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 발표를 넘어, 플랫폼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환점으로 평가
- ✓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 축이, 단일 디바이스의 혁신에서 벗어나 AI를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이동
- 특히, 소프트웨어 정의 구조(SDV)의 부각과 함께, 구독형·AI 기반 서비스 중심의 장기 수익 모델(LTV)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 ✓ CES 2026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 실물 기반 산업을 AI로 구조 전환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작용

CES 2026 시사점

구분	핵심 변화 방향
AI가 '기능'에서 '인프라'로 전환되는 흐름	• CES 2026에서는 AI가 개별 기기의 기능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관통하는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 • 주요 IT·전자 기업들은 스마트폰·가전·차량·로봇·헬스기기에 이르는 제품군 전체에 공통 AI 플랫폼(공통 모델: 경량 LLM·온디바이스 AI)을 적용해, HW-SW-클라우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포지셔닝 •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 타깃의 구독형 서비스 구축,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가능
소프트웨어 정의 제품의 가속화	• 차량뿐 아니라 가전, 산업 장비, 로봇 등 대부분의 하드웨어 영역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지속 확장되는 구조 부각 • AI 기반 진단·최적화 기능이 강조되며, 초기 판매보다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 걸친 수익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
로봇·모빌리티·헬스테크로의 포트폴리오 확장	• 전통적인 TV·가전 중심 기업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헬스케어 플랫폼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 → B2B형 서비스 로봇 시장 공략 강화
산업용·B2B 솔루션 비중의 확대	• 건설·물류·제조 등 산업 영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화 설비가 높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소비자용과 산업용을 모두 아우르는 듀얼 포트폴리오 전략을 강화 → CES가 전통적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산업 전환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지속가능성·에너지 효율 중심의 설계 강화	• 글로벌 기업들은 저전력 AI, 고효율 전력체계 기술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패키지를 구성하며, 강화된 ESG 요구와 규제에 대응 • 특히 데이터센터·모빌리티용 AI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저전력 아키텍처·경량 모델 설계가 주요 기술 키워드로 부상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8 AI로 재편되는 경제 구조

- ✓ CES 2026은 AI 중심 기술 혁신이 공급 측 생산성을 높이고, GDP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동시에 노동 및 비용 구조의 변화는 물가 안정(구조적 디스인플레이션)과 단순 노동의 자동화·재편을 촉진하며,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가속화
- ✓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 무역 방식, 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플랫폼 독점과 기술 집중에 따른 불균형 리스크도 함께 확대될 전망
- 플랫폼 중심 수익 구조 변화 → 특정 기업·섹터에 수익 집중, 기술 집중에 따른 자산시장 양극화 및 독점 리스크 확대

CES 2026 트렌드와 AI 기술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핵심 아젠다	매크로 영향	시사점	거시경제적 영향 (Macro Effects)
Agentic & Physical AI (에이전트·로봇)	공급 측면의 생산성 혁명	• 노동력 부족 → 기술 대체로 전환 • 인건비 부담 ↓, 설비투자(CAPEX) ↑ • 보조 수준을 넘어, 기술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 →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핵심 요인	• GDP: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 잠재 성장률 상승 압력 • 물가: 지식노동 자동화로 인건비 절감 → 구조적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 • 고용: 반복·지식 기반 업무의 자동화 → 노동 대체 및 일자리 재편 가속
Platform & 서비스화 (SDV, 커넥티드 헬스)	산업 구조의 고도화 : 제조의 서비스화	• 하드웨어에서 구독 기반 서비스로의 수익 구조 전환 - 제조 중심 → 고마진 구독 모델로 이동 - 제품 판매 → 지속 수익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 - 기업 이익률 상승 및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	• 기업 수익성: 매출 구조가 일회성 → 반복 수익 모델로 전환 → 영업이익률 개선 • 무역 구조: 상품 중심 → 디지털 서비스·지식재산(IP) 기반 무역 비중 확대 • 자산시장: 플랫폼 독점력 강화 → 빅테크 중심 쏠림 심화 가능성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9 기술 혁신의 빛과 그림자: 성장과 거시 리스크

- ✓ AI 기반 산업 전환은 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관련 투자 확대를 동반하면서, 물가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라는 새로운 거시경제 변수로 작용
- ✓ 자본 조달 방식의 다변화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새로운 변동성을 유발하며, 이는 향후 투자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등장을 시사
- ✓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미·중 간 통상 갈등은 무역 구조와 환율 안정성에 구조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임금 기반 성장 모델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CES 2026 트렌드와 AI 기술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핵심 아젠다	매크로 영향	시사점	거시경제적 영향 (Macro Effects)
AI Infra & Energy (에너지 그리드, 전력망)	성장의 새로운 병목	- AI 연산 수요 급증 → 전력 인프라 부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공급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도래 - 이에 따라 대규모 전력망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흐름	- 물가: 전력 인프라 부족 시 에너지비용 상승 →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유발 - 재정: 정부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 확대 (재정지출 증가) - 투자: AI 투자와 소비를 선행하는 성장 견인 (투자 주도형 성장)
Web3 & DePIN / RWA (분산 인프라, 토큰화)	자본 조달 구조의 혁신	- Web3·DePIN: 실물 인프라·자산을 분산화하고 토큰화해 기존 금융·산업 시스템을 탈중앙 구조로 전환 - RWA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의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하며, 민간 자본의 공공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는 신 금융 모델로 부상	- 통화정책: 민간 자본 유입 경로 다변화로 금리 효과 약화 가능성 - 자산시장: 인프라·부동산 중심 토큰화, 민간 주도 공급 확대 - 금융안정성: AI 활용한 자동화 금융 확산 → 그림자금융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
Reshoring & Automation (공급망 재편)	GVC (Global Value Chain)의 구조 변화	- 지능형 자동화 확산으로 저임금보다 기술 인프라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소비지 인근으로 생산시설 회귀(Reshoring) 가속 - 공급망 블록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도 지역 내 생산 확대 추세	- 무역: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무역 둔화 및 블록화 심화 - 환율: 미국 중심 통화·금융 긴축 → 신흥국 자본 유출 압력 - 산업구조: 저임금·노동력 우위 성장모델의 한계 도달, 구조 전환 필요성 확대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 AI 기술 진화에 따른 성장, 물가, 불균형의 삼중 효과

- ✓ AI 관련 투자가 소비보다 GDP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제 구조는 인적 자본 중심에서 기술 자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 Agentic AI는 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에너지 인프라의 병목은 비용 상승 및 공급 충격으로 작용,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 AI 인프라와 기술 표준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은 수확 체증 효과를 누리는 반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성장 둔화와 경제적 격차 심화에 직면할 우려

CES 2026 주요 트렌드에 따른 거시적 영향

주요 변수	내용	거시적 영향
자본 심화의 가속	AI 관련 투자는 가계 소비보다 GDP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며, 경제 구조는 인적 자본 중심에서 기술 자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긍정적 영향: 설비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총요소생산성(TFP) 개선, 성장의 질적 전환 • 부정적 영향: 자본집약 산업 중심 구조 고착화, 노동시장 이중화, 인적 자본 투자 위축 가능성
인플레이션의 양면성	Agentic AI 확산은 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력망 부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 통화정책에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	• 긍정적 영향: 서비스 부문 가격 안정, 장기적 비용 절감, 디스인플레이션 유도 • 부정적 영향: 에너지 비용 급등, 인플레이션 경로 불확실성 확대, 통화정책 운용 복잡성 증가
성장의 양극화	AI 인프라와 표준을 선점한 국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동집약적 구조에 의존하는 지역은 성장 둔화 가능성 확대	• 긍정적 영향: 기술 선도국의 성장 가속, 글로벌 투자 집중, 표준 선점에 따른 수익 기회 확대 • 부정적 영향: 국가 간 성장 격차 심화, 디지털 격차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AI용 반도체, 스마트 전력기기,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저부가가치·조립형 중심 산업은 수출 경쟁력과 성장성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 한국 역시 '대만식 양극화'와 유사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출 실적은 양호하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술 기업에만 집중되고 산업 전반, 고용, 소득 등으로의 확산이 제한되는 구조적 편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CES 2026 트렌드와 AI 기술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유리한 수출 품목
반도체 수요 구조 변화	기존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PC·모바일 중심의 D램 위주였으나, Agentic AI(자율 에이전트) 시대에는 추론용 및 엣지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반도체 수출 구조 고도화의 기회 - 새로운 AI 전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반도체 수출이 유망,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고성능 비메모리 및 AI 특화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 재편	- AI용 시스템 반도체 - NPU·GPU 등 고성능 칩 - 차량용 반도체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AI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수요 확대 → 전력기기 산업으로 수요 집중	- 전력기기 산업이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부상 - AI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용 장비의 수출 기회	- 변압기 등 고압 전력기기 - ESS(에너지 저장장치) - 스마트 계량기·전력 관리 시스템
자동차 산업의 플랫폼 전환 (SDV)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정의되면서, 수출 지표가 판매 대수에서 플랫폼 영향력으로 관심 이동	- 판매 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수출 경쟁력이 중요 - SDV 수출 가치 상승: 완성차 수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다면 전체 자동차 수출의 질적 개선 가능	- 차량용 SW 모듈 - 자율주행 센서 - 전장부품
무역 환경의 구조 변화	- 수출 품목 및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추세 - 저가 대량 중심에서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수출로의 전환이 중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필요	- 프리미엄 가전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 고기능성 소재 및 부품

자료: C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I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CES 2026

- ① 반도체
- ② 전기전자/디스플레이
- ③ 자동차
- ④ 미국주식



① 반도체

AI, AI, only AI

| 반도체 박유악 yuak.pak@kiwoom.com

| RA 조준형 jun59057@kiwoom.com



01 NVI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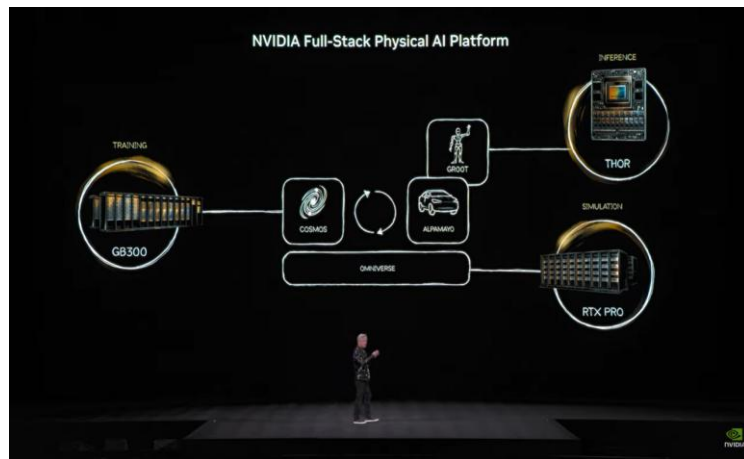
- ✓ Vera Rubin 실물 공개 및 일정 로드맵 공유
- ✓ AI 컴퓨팅 수요 폭발을 못 따라가는 무어의 법칙의 한계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한 Vera Rubin의 성능 강조
자율 주행 및 로봇틱스 관련된 중장기 전략 업데이트
- ✓ Vera Rubin: Vera CPU + Rubin GPU. Blackwell 대비 추론 성능 5배, LPDDR5X 용량 5배, HBM 용량 1.5배 증가. 토큰 당 비용은 1/10 감소
올해 하반기 출시를 위해 현재 Vera Rubin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공유해 청중들의 환호가 이어짐
- ✓ Cosmos: Physical AI를 위한 Open Frontier World Foundation 모델. 연산을 사실적인 데이터로 변환해 Physical AI 학습 데이터를 생성
- ✓ Alpamayo: 인간 데이터와 Cosmos 생성 데이터로 훈련된 오픈 소스 자율 주행 시스템. 실제 자율 주행 영상 공개로 청중들의 박수를 받음

NVIDIA가 공개한 Vera Rubin NVL72의 Spec

NVIDIA Vera Rubin NVL72		
NVFP4 Inference	3.6 EFLOPS	5X Blackwell
NVFP4 Training	2.5 EFLOPS	3.5X
LPDDR5X Capacity	54 TB	3X
HBM Capacity	20.7 TB	1.5X
HBM4 Bandwidth	1.6 PB/s	2.8X
Scale-Up Bandwidth	260 TB/s	2X
Transistors	220 Trillion	1.7X

자료: NVIDI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PU 제조사에서 Full-Stack Physical AI 플랫폼 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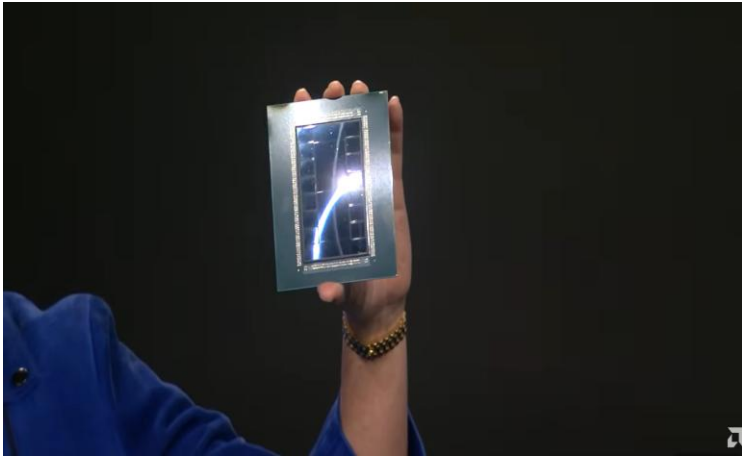


자료: NVIDI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A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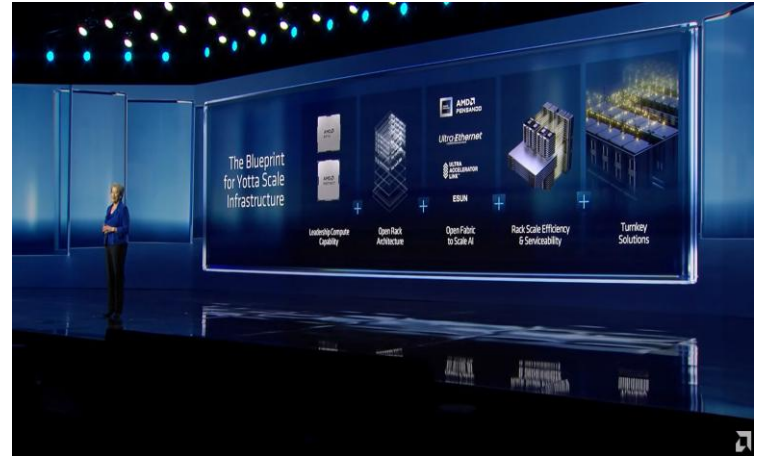
- ✓ AI 신제품 라인업 공개
- ✓ Instinct MI455X GPU: 트랜지스터 총 3200억 개(vs. Rubin GPU 약 3,360억개). HBM4 432GB 탑재(vs. Rubin HBM4 288GB) MI430X, MI440X 추가 예정이며, 2027년 MI500 시리즈 출시 예정
- ✓ AI 컴퓨팅 수요 충당을 위해, 클라우드, AI PC, 임베디드 컴퓨팅 등의 인프라 솔루션 확장에 집중할 계획
- ✓ Venice: 서버용 CPU(Zen6 아키텍처 기반, 256 코어). 2nm 공정 적용. 직전 세대 대비 메모리 및 GPU 대역폭 2배
- ✓ Helios Rack: 260TB 대역폭의 31TB HBM4 메모리 탑재. 2026년 출시 예정
- ✓ Ryzen AI Pro Series: Zen5 아키텍처와 XDNA 2 NPU를 기반으로 최대 60TOPS 성능을 제공

AMD Instinct MI455X GPU



자료: AM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급증하는 AI 컴퓨팅 연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AMD의 AI 인프라 전략



자료: AM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Intel

- ✓ Core Ultra Series 3 AI PC 프로세서 공개. Panther Lake 아키텍처 적용
- ✓ Core Ultra Series 3: 18A 공정 기반의 첫 AI PC 플랫폼. 2026년 1월 27일부터 글로벌 출시 예정
 - Mobile: Intel Core Ultra X9 및 X7 프로세서 포함. 고급 워크로드를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 Edge: 임베디드 및 산업용 인증을 획득. 최대 1.9배의 LLM 성능, 엔드투엔드 비디오 분석에서 와트당 토큰 비용 2.3배 개선, VLA 처리량 4.5배 향상
- ✓ 차세대 PC 로드맵: 1H26 추가 모델 및 Series 3 기반의 edge 시스템 제품 출시 예정

Intel Core Ultra Series 3 출시



자료: Inte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re Ultra Series 3가 탑재된 노트북 제품



자료: Inte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Qualcomm

✓ AI, IoT, 로보틱스로 포트폴리오 확장

✓ Snapdragon X2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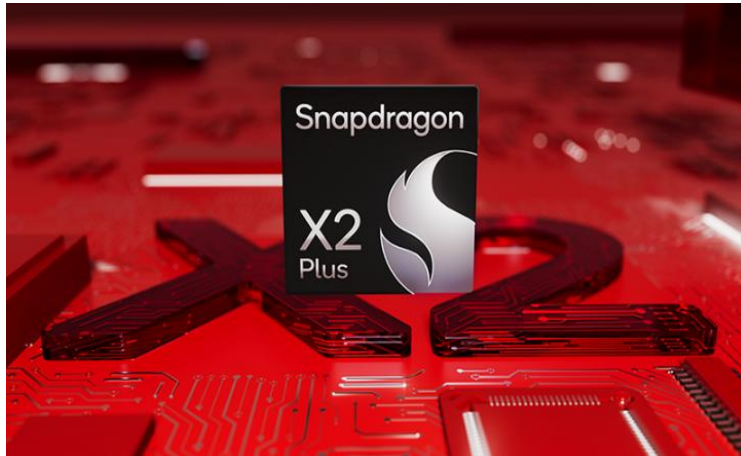
3세대 Qualcomm Oryon CPU 탑재. 직전 제품 대비 싱글 코어 성능 +35%, 전력 소모는 -43%

Qualcomm Hexagon NPU: AI 성능 향상(80TOPS), Agentic AI 멀티태스킹 기능 구현

향후 Snapdragon X 시리즈 전반에 Windows 11 Copilot+ PC 탑재율 확장 예정

✓ Dragonwing IQ-X: 산업용 자율이동로봇(AMR) 및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로봇 프로세서 공개

Qualcomm이 공개한 Snapdragon X2 프로세서



자료: Qualcom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Qualcomm의 로봇 공학 종합 스택 아키텍처



자료: Qualcom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Broa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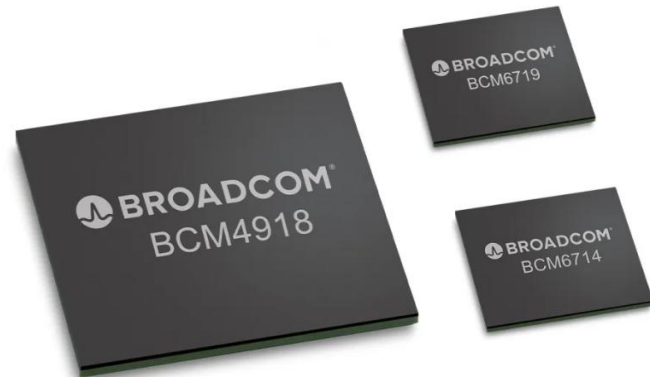
- ✓ Wi-Fi 8 기반 신제품 3종 공개
- ✓ Wi-Fi 8: 다중 접속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지연 시간 관리, 연결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둔 차세대 Wi-Fi 규격
작동 주파수와 최대 대역폭은 이전 세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 전송 속도 23Gbps 목표
IEEE 주도로 2027년 말 공식 발표 예정. 현재 표준화 논의 중
- ✓ BCM4918: 차세대 AI Edge SoC APU. CPU의 컴퓨팅 유연성, 네트워크 가속기의 효율성 등을 지원
- ✓ BCM6714: APU를 보완하는 듀얼 밴드 Wi-Fi 8 모듈. 3개의 2.4GHz 무선 모듈과 4개의 5GHz 무선 모듈 탑재
- ✓ BCM6719: APU를 보완하는 듀얼 밴드 Wi-Fi 8 모듈. 4개의 2.4GHz 무선 모듈과 4개의 5GHz 무선 모듈 탑재

Wi-Fi 8 Spec



자료: Broadco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Broadcom이 공개한 신제품 3종



자료: Broadco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삼성전자

✓ 반도체 부문 CES2026 혁신상 2개 수상

✓ 반도체 부문 CES 혁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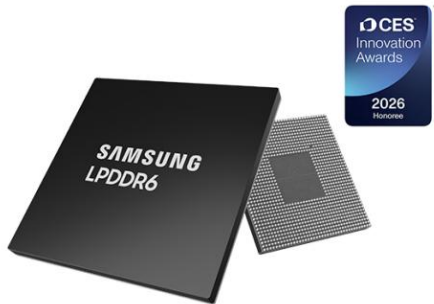
LPDDR6: 고성능 on-device AI용 세계 최초 LPDDR6

PM9E1: 초소형, 고성능의 AI 최적화 Pcle Gen5 NVMe SSD. AI에 최적화된 초소형 M.2 폼팩터 기반 스토리지 드라이브 양쪽 면에 V8 NAND와 메모리를 배치해 최대 4TB 고용량 가능. AI PC 및 고성능 노트북에 탑재될 전망

✓ 반도체: 프라이빗 전시관에서 주요 고객사들 대상 비공개 미팅에 주력

NVIDIA 측 인사들이 DS 부스를 찾아 1시간 가량 둘러보고, Qualcomm과 2nm 공정을 활용한 AP 위탁생산 논의를 협의하는 등 협업에 집중

삼성전자: LPDDR6 제품



자료: 삼성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PM9E1 M.2 22x42 제품



자료: 삼성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SK하이닉스

✓ 고객들과 신제품 정보 공유에 주력

HBM4 16단 제품: 업계 최고 속도인 11.7Gbps를 구현한 HBM4 12단 36GB 후속 모델

SOCAMM2: AI 서버 특화 저전력 메모리 모듈 제품 공개

LPDDR6: on-device AI 구현 위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 크게 개선

NAND: 321단 2Tb QLC 제품 공개.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용량 eSSD 판매 확대 목표

✓ Custom HBM의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전시물도 마련하는 등 제품 정보 공유에 집중

SK하이닉스가 공개한 CES2026 전시 제품



자료: SK하이닉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Custom HBM 내부 구조 전시물



자료: SK하이닉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② 전기전자/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에서 AI 플랫폼으로

| 전기전자/디스플레이 김소원 sowonkim@kiwoom.com

| RA 김종현 bellstring@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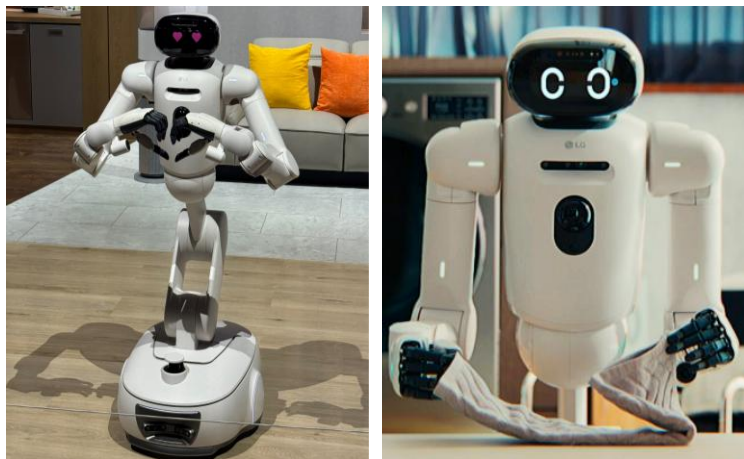


01

휴머노이드 로봇: LG전자, 가정용 휴머노이드 첫 공개

- ✓ Physical AI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변화를 만들고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AI로, 로봇은 physical AI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플랫폼
- ✓ CES 2026을 통해 로봇을 넘어 TV, 가전, IT 기기 전반이 physical AI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
- ✓ LG전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CLOiD)' 공개. 또한 가전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제로 레이버 홈(Zero-Labor Home)' 비전 제시
- ✓ 클로이드는 휠 기반 자율주행 기술 적용. 105cm~143cm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몸체의 팔은 7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갖춰 사람 팔과 유사. LG전자는 HS로보틱스연구소를 통해 가정용 로봇 기술 경쟁력 강화할 계획이며, LG이노텍의 비전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 기술 또한 적용
- ✓ LG전자는 클로이드와 함께 자체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XIUM)'도 공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뿐 아니라 액추에이터 외부 판매 확대를 통해 로봇 및 부품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으로 판단

LG전자 클로이드(CLOiD)



자료: LG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LG전자 클로이드(CLOiD) 주요 스펙

스펙	내용
키 높이	105~143cm
팔 길이	87cm
팔 구동 자유도	어깨 3가지, 팔꿈치 1가지, 손목 3가지 등 총 7가지
손가락	5개 손가락 개별 관절 구동
하체	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
머리	이동형 AI홈 허브 LG Q9 탑재, (칩셋,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와 센서 탑재)
생산 및 출시 계획	실증 단계를 반영해 결정
가격	미정(구독 형태 판매 검토 중)

자료: LG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1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의 약진

- ✓ CES2026 로보틱스(Robotics) 분야 참가 38개 사 중 21개가 중국 기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 ✓ 보행 / 공연 등 단순 시연에서 안내, 정리, 운반 등 업무 단위 중심으로 발전
- ✓ 산업 현장 응용 가능성 및 가동시간 등 실제 활용 능력에 무게

Unitree - 공장 자동화 솔루션과 서비스형 로봇(RaaS) 모델 확장



전체 로봇 제품군 선보이며 화제의 중심이 된 Unitree

- 신형 휴머노이드 모델 H2(초대형), R1, G1, 사족 보행 로봇 A2, Go2를 포함한 전체 로봇 제품군 공개
- '26년 출시 예정인 초대형 모델 H2는 높이 약 180cm에 31자유도를 갖춰 산업 현장 점검 및 중장비 조작에 특화
- 로봇 하드웨어 판매 뿐 아니라 공장 자동화 솔루션과 서비스형 로봇(RaaS)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 확장 전략도 공개

자료: Unitree, CMR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UBTech -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Walker S2 모델



산업 현장용 휴머노이드 로봇 Walker S2

- 배터리를 로봇 스스로 교체(autonomous battery swapping)하는 기능 보유
- 듀얼 배터리 동적 밸런싱 + 양팔 협조 정밀 스와핑으로 3분 내 자율 교체 가능
- 배터리 잔량을 모니터링해 교체/충전 여부를 결정하는 동적 전력 관리 기능 보유
- 최대 7.2km/h로 이동 가능한 운동 능력에도 주목

자료: UBTe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1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의 약진

- ✓ 로봇 기술이 일상 생활에 깊숙이 통합되는 흐름 강화,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로봇의 등장
- ✓ 손의 중요성 강조. RobotEra는 다관절 로봇손(XHAND1)을 핵심 제품으로 배치, Agibot도 덱스터러스 핸드(Dexterous Hand)/시스템을 핵심 축으로 선보여
- ✓ 소통, 스킨십 등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과 감성 교류에 초점을 둔 제품 시연

Fourier - 부드러운 외피를 가진 Care-Bot(돌봄 로봇) 북미 시장 최초 공개



CES 첫 참가, 감성 교류와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초점 맞춘 GR-3 공개

- 키 165cm, 무게 71kg급으로 총 55자유도 관절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
- 전통적인 금속 외장이 아닌 부드러운 소재의 외피(자동차급 고급 섬유 및 폼 패딩)로 덮여 있어 보다 친근한 인상
- 시각·청각·촉각을 통합한 멀티모달 인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RGB/구조광 카메라로 얼굴과 동작을 인식하고 4개의 마이크로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며, 몸에 분산된 31개의 압력 센서로 사람의 촉감을 감지

자료: CE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giBot- Nvidia 부스 안내, AgiBot Raise A2가 담당



Nvidia AI 컴퓨팅 플랫폼 채택 Raise A2, 관람객들 부스까지 길 안내

- 자율 주행을 위한 360도 센서 세트(LiDAR 및 HD 카메라)를 장착. 이번 CES Nvidia 부스에서는 안전을 위해 인력 조종이 부분적으로 있었음
-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을 채택해 강력한 인지 및 제어능력 보유, AgiBot 자체 개발 로봇 손 기술 기반으로 정밀 작업 수행 가능
- NVIDIA Isaac Sim 기반 구축 오픈 소스 훈련 플랫폼 Genie Sim 3.0도 공개

자료: AgiB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1

휴머노이드 로봇 사양 비교

휴머노이드 로봇 비교

분류	LG CLOiD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현대차 아틀라스(양산형)	UbTech Walker S2	유니트리 H2
외관/무게	키: 105~143cm 무게: 약 70kg	키: 약 173cm 무게: 약 73kg	키: 약 190cm 무게: 약 90kg	키: 약 176cm 무게: 약 70kg	키: 약 182cm 무게: 약 70kg
액추에이터	전동 액추에이터 탑재 (LG AXIUM) 팔 당 7 DoF	전기 액추에이터 (팔 하나당 26개 사용)	56 DoF 전기 액추에이터	52 DoF 전기 액추에이터	31 DOF 전기 액추에이터
손 자유도	손가락 5개 (손가락 개별 관절 제어)	22 DoF(손가락 5개) 인간 수준에 근접	손가락 4개 사람과 유사한 크기	총합 22 DoF(손가락 5개) 정밀 손 구현	자사 / 타사의 텍스처러스 (여러 손가락을 가진 로봇 손) 핸드 부착 가능
배터리 시간	미공개	수 시간 이상 (2.3kWh)	4시간	보행 시 2시간 / 정지 시 4시간	3시간
상용화 계획	'27년 실증 단계 진행 후 결정	'26년 1분기 프로토타입 공개 예정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등 생산 시설 활용. 28년 부품 분류 작업부터 시작	'25년 하반기 고객사 대 상 납품 시작	판매 시작. '26년 4월부터 고객 대상 배송 예정
양산 계획	'27년 실증 단계 진행 후 결정	'26년 상반기 중 양산 목표	'28년까지 연간 3만대의 로봇 생산 시스템 구축	'25년 500대 납품 목표 '26년 5,000대 '27년 10,000대 CAPA 확보	현재 주문 생산 방식. 향후 수요에 따라 생산 확대 예정
가격	미공개	대당 가격 2~3만 달러 목표 생산 비용 2만 달러 목표	초기 생산 가격 \$13만~14만 추정 / 1만 대 이상 양산 시 \$10만 이하 하락	미공개	\$29,900(기본형)

자료: 각 사, 업계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스마트홈

- ✓ TV를 비롯한 주요 가전은 AI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발전 중.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가전 업체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핵심 제품군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 강화. 특히 단순 인지·판단을 넘어 인지 → 판단 →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술 완결성 부각
- ✓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집안일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로 레이버 홈'과 '홈 컴패니언'의 가전 사업 비전을 각각 제시
- ✓ 주요 가전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및 비전 기술을 고도화하며 AI 플랫폼으로의 하드웨어 역량 강화

LG전자 오븐레인지: AI로 요리 편리성 및 조리 기능 강화



LG전자 오븐레인지의 주요 AI 기능

- 오븐레인지의 고메 AI (Gourmet AI) 기능을 통해 내부 카메라로 재료를 식별하여 80여개 레시피를 추천
- 오븐레인지의 6.8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추천 메뉴 및 레시피를 제안
- AI 브라우닝 알람 기능을 탑재하여 고객이 선택한 굽기로 조리되는 시점에 알람을 보내주는 등 AI 기반의 요리 기능 강화

자료: LG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AI 푸드 매니저 기능 탑재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주요 기능

- 가전 최초로 Gemini 탑재.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개인 일정과 활동 정보를 담은 '나우 브리프'를 스크린으로 제공. 음성 명령만으로 문 작동 가능
- Gemini와 내부 카메라 기반의 'AI 비전' 기능을 결합해 식품 인식 성능 향상
-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식재료 구매, 레시피 추천, 식재료 사용 분석 등이 가능한 'AI 푸드 매니저' 기능 탑재

자료: 삼성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스마트홈

- ✓ 중국 가전 업체들도 AI 기술을 탑재한 가전과 로봇을 공개했으나, TV 중심으로 기술 강조. 기타 생활 가전의 AI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 TCL은 지난 CES 2025에서 공개했던 가정용 AI 로봇 '에이미(AiMe)'를 전면에 내세운 '에이미 랜드'를 만들어 간단한 기능 시연. 에이미는 바퀴형 휠로 움직이며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인식, 음성 인식 기반으로 가전 제어 및 사용자와의 정서적 교감 목표
- ✓ 하이센스는 에이미와 유사한 반려 로봇 '베타(Beta)' 및 휴머노이드 로봇 '할리(Harley)' 공개. 베타 또한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며 원격 모니터링 기능 지원. 할리는 31개 관절 자유도를 갖췄으며, 손 흔들기와 간단한 춤과 같은 단순 동작 가능
- ✓ 다만 중국 가정용 로봇은 대부분 간단한 동작 시연과 응답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제 가정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는 미공개

TCL의 AiMe LAND



자료: TC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isense의 휴머노이드 로봇



자료: Hisen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TV

- ✓ TV에서 AI는 더 이상 부가 기능이 아닌 필수 사양으로 자리잡는 모습. 특히 2025년에는 AI가 주로 화질 개선 중심의 보조 기능을 했다면, CES 2026에서는 화질과 사운드의 실시간 처리, AI 기반 사용자 및 환경 인식 기능 본격 확대. 더불어 TV 소프트웨어 전반에 보안 시스템 구축 강화
- ✓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RGB 중심의 하이엔드 LCD TV 라인업이 확대되고, OLED TV는 초슬림 디자인 및 대형화 중심으로 제품 차별화
- ✓ 삼성전자는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최초 공개했으며, 제품 라인업 다변화. 지난해 75"/85"/98"(8K) 제품에서 올해 55"/65"/100" 등 제품 사이즈 추가. 또한 베젤 없는 83인치 울트라 슬림 OLED TV를 내세우는 등 OLED TV 라인업을 다변화하며 하이엔드 시장 지배력 확대
- ✓ LG전자는 9mm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OLED TV 'LG OLED 에보 W6' 공개. 얇은 두께에 스피커까지 내장하여 벽에 완벽히 밀착 가능한 기술 적용
- ✓ LG전자 또한 LCD 백라이트에 초소형 사이즈의 RGB LED 광원을 적용한 '마이크로 RGB 에보 TV' 최초 공개. 중국 가전 업체와의 TV 경쟁 심화 속, 하이엔드 LCD TV 라인업을 강화하는 모습. 또한 webOS에 기존 MS의 코파일럿 외에도 구글 제미나이를 추가해 개인 맞춤형 AI 기능 고도화

삼성전자 130형 마이크로 RGB TV



자료: 삼성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LG전자 OLED 에보 W6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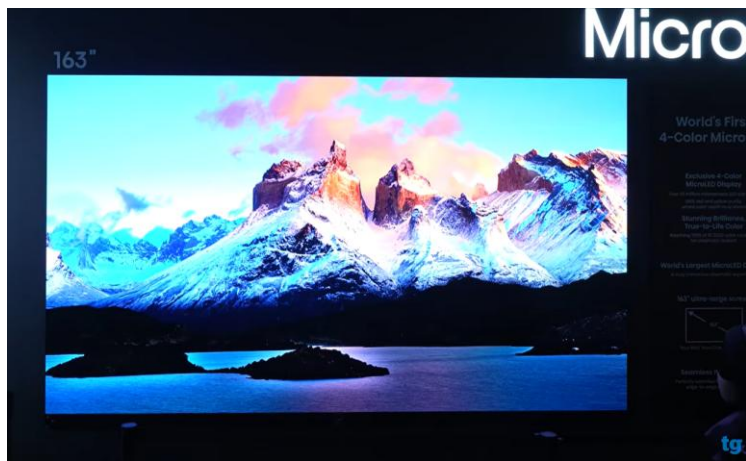


자료: LG전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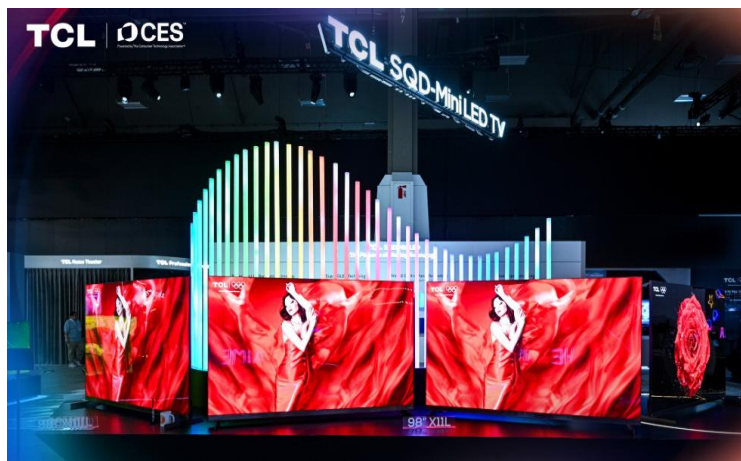
- ✓ 중국 TV 업체들의 OLED TV 출시는 제한적인 가운데, 여전히 미니 LED 및 마이크로 LED 중심의 하이엔드 라인업 확대
- ✓ 하이센스는 중국 업체 중 가장 기술 경쟁력이 높은 업체로 분석되며, 미니 및 마이크로 LED 중심의 TV 기술 고도화 지속
- ✓ 하이센스는 116인치 RGB 미니 LED evo TV 공개. 특히 기존 백라이트의 RGB LED 소자에 업계 최초로 Cyan LED를 추가하여 인간 시각이 민감한 중간 파장대 색까지 커버
- ✓ 또한 163인치 자발광 RGBY 마이크로 LED TV를 함께 공개. 이는 업계 최초로 노랑(Yellow) 소자를 추가한 RGBY 4원색 마이크로 LED 기술 적용
- ✓ TCL은 지난해에 이어 QD-미니 LED TV에 집중. 전작 대비 색 재현성을 높였으며, 최고 휘도 또한 10,000니트로 개선. 85인치 및 98인치 SQD(슈퍼 쿼텀닷) 미니 LED TV를 1월부터 판매 예정이며, 이후 75인치 모델도 출시할 계획. 85인치와 98인치 판매가 각각 \$8,000, \$10,000 수준

하이센스 163" RGBY 마이크로 LED TV



자료: Tom's 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TCL 98" SQD-미니 LED TV



자료: TC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디스플레이

- ✓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의 단순 화면 역할에서 이제는 AI와 인간 인터페이스의 핵심 부품으로의 역할 수행. 특히 CES 2026을 통해 주요 가전과 전장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탑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 ✓ LG디스플레이는 CES 2026을 통해 OLED 패널이 AI 시대에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디스플레이'임을 언급. 특히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수 있는 OLED 패널 최초 공개. 휴머노이드에서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규격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규격과 유사
- ✓ 삼성디스플레이는 'AI OLED 봇' 등 AI와 OLED가 융합된 기술과 AI 노트북/모니터/태블릿용 IT OLED 등 AI 하드웨어에서 OLED 패널의 소비 전력 및 내구성 부각.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8.6세대 OLED 라인 신규 양산과 함께 IT OLED 매출이 +20~30% YoY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더불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형 폴더블 패널 대비 주름 깊이를 약 20% 감소한 차세대 폴더블 패널 공개. 해당 패널은 올해 양산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

삼성디스플레이 AI OLED 봇



자료: 삼성디스플레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폴더블 패널(우)



자료: 삼성디스플레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③ 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마주하게 될 Physical AI

| 자동차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 RA 권용일 kwonyy@kiwoom.com



01

Hyundai's Physical AI – Boston Dynamics

- ✓ 현대차그룹은 CES 2026에서 자동차 제조사로서 향후 전개해 나갈 Physical AI 신사업(로보틱스, 로보택시, Software-Defined Factory) 중 하나로 제시해왔던 로보틱스 분야에 Keynote 포커스를 두었음. Boston Dynamics는 양산 전제로 설계된 휴머노이드 '개발형 Atlas' 실물 모형을 최초 공개. 그동안 대중에 공개해왔던 Atlas는 양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구 목적 '연구용 Atlas'였으므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판단.
- ✓ 개발형 Atlas는 최종적으로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목표로 미국에서 생산 시작될 전망. 양산 위해 Google, Nvidia와도 SW & HW 협업 확대 성과.

Boston Dynamics Atlas – 연구형(좌)과 양산 전제 설계된 개발형(우)



CES 2026 Keynote 직후 공개된 개발형 Atlas 스펙

- Runtime: 최대 4시간, self-swappable battery 탑재
- 키: 1.9m(최대 2.3m 높이까지 작업 가능), 중량: 90kg
- Weight Capacity: 30kg 무게 지속 작업 가능(순간 최대 50kg)
- DoF(Degrees of Freedom): 56개
- 작업 가능 환경: -20°C ~ +40°C
- Reliability, Repairability, Upgradability: 상품성 측면 키워드 강조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oogle, Nvidia 등 미국 빅테크와 협업 확대



개발형 Atlas: Nvidia DRIVE AGX Thor, Google DeepMind

- 2025년 10월 발표됐던 현대차그룹 & Nvidia 파트너십 체결 내용에 따르면 향후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 및 로봇의 'AI Brain'을 담당할 칩은 Nvidia Drive AGX Thor가 될 것임이 공개된 바 있음.
- Boston Dynamics의 개발형 Atlas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HMGMA에 작업 투입 준비를 위해 RMAC(Robot Metaplant Application Center)에서 Gemini에 기반을 둔 Google DeepMind로 트레이닝 예정.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Hyundai's Physical AI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은 CES 2026에서 MobED(Mobile Eccentric Droid) 2개 모델(MobED Basic, MobED Pro) 공개. 특히 MobED Pro는 LiDAR 및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기능 탑재. 소형 이동형 로봇 MobED 컨셉은 2021년에 첫 공개됐으며 2026년 1분기 중 상용화 및 양산 예정.
-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은 국내 AI 반도체 업체 DEEPIX와 지난 3년간 공동 개발한 On-Device AI Chip 'Edge Brain' 양산을 CES Foundry 2026에서 발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궁극적 지향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RTS(Robot Total Solution)를 공급하는 것.

MobED: MobED Basic(좌), MobED Pro(우)



단거리 물류의 혁신을 주도할 MobED 상용화

- 배달, 촬영, 스포츠 등 소형 물류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했으며 최대 속도는 10km/h.
- 각 휠에 탑재된 3개의 구동모터가 조향, 자세 제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지형 제약 극복에 특화. 너비: 74cm, 길이: 115cm, 적재중량: 47~57kg.
-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MobED는 초기 양산 모델 대비 50% 평가 인하를 목표로 함.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RTS(Robot Total Solution) 사업 예시



현대차그룹 On-Device Chip 내재화를 위한 첫 발걸음

- 현대차그룹 Physical AI 신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갈수록 결국 핵심 밸류체인에 대한 높은 외부 의존도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불리한 구조. 이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은 AI Chip 내재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성과.
- 'Edge Brain'은 DEEPIX DX-M1 기반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안면 인식 시스템 Facey와 연동됨. On-Device Chip이기에 클라우드 연결 없이 자체 의사결정 가능, 작업 환경의 제약을 축소하는 효과.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Hyundai's Physical AI – Dark Factory

- ✓ AI Robotics 기술은 AI 기반으로 자체 의사결정을 내리는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 휴머노이드 등 AI Robotics 기술 투입을 전제로 완전 자동화 설계된 공장은 하나의 거대한 Physical AI 현장이 될 것이며 이는 24/7 가동되는 Dark Factory를 의미.
- ✓ 현대위아는 CES 2026에서 창원공장을 2028년까지 Dark Factory로 시범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현대위아의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부는 물류로봇(AMR/AGV), 주차로봇 등을 개발하는 로봇 사업실과 생산설비 자동화(Factory Automation)를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실을 운영 중.

현대차그룹 중장기 자율제조 프로젝트: Dark Factory 247(DF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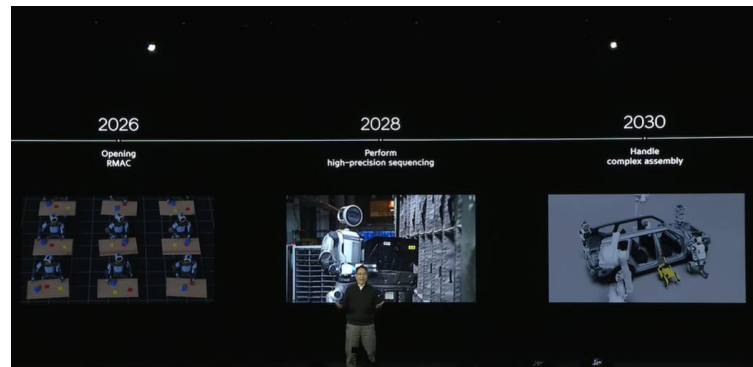


Software-Defined Factory를 넘어 Dark Factory로

- 현대차그룹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스마트팩토리를 SDF(Software-Defined Factory)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 사이트로 HMGICS(싱가포르), HMGMA(미국) 가동 중. HMGMA에는 28년부터 양산형 Atlas 작업 투입 예정.
- Dark Factory는 설계부터 완전 무인화를 전제하는 것이 효율적. 현행 현대차그룹 SDF는 작업자 투입을 전제로 설계됐기에 Dark Factory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의 공장으로 볼 수 있음.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ES 2026 Keynote에 이어 개최된 글로벌 경영진 회의(GLF)에서도 DF247



SDF 솔루션 사업: 현대오트메버(소프트웨어), 현대위아(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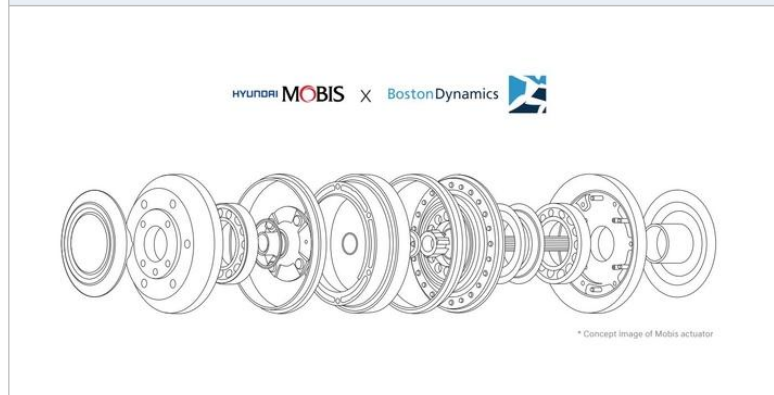
-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진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GLF)이 CES 2026 현장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포럼의 주요 주제로 DF247 채택된 것으로 알려짐.
- Dark Factory 실현을 위해서는 AI 기반으로 작업, 물류, 설비의 자동화가 연계될 필요. 작업과 물류의 자동화는 로봇이 수행할 예정이며 설비 자동화 구축을 위해서는 현대오트메버 소프트웨어, 현대위아 하드웨어의 역할 중요.

자료: 현대차그룹,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현대모비스, HL만도 -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 ✓ 현대모비스: 로봇틱스 사업 추진실 운영하고 있으며 CES 2026에서는 프라이빗 부스만 설치.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원가의 50~60%가 액추에이터로 구성될 것으로 제시하며 수요가 많은 액추에이터를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부품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 확대 계획 밝힘.
- ✓ HL만도: Robot Actuator실 운영하고 있으며 CES 2026 HL그룹 부스에서 로봇용 관절 액추에이터 공개 전시. 2028년 북미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개시 계획 발표. 자동차 부품 본업에서 축적한 샤시 기술력 기반으로 모터-감속기-제어기를 별개 구성하지 않고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Boston Dynamics Atlas에 탑재될 관절 액추에이터 컨셉



2025년 8월 개최된 CEO Investor Day에서 신사업 진출 공식화

- 휴머노이드 관절 액추에이터 양산을 시작으로 그리퍼, 센서, 제어기, 배터리팩 등 휴머노이드 부품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계획. 이 과정에서 Boston Dynamics 이외의 non-captive 고객사 확보 시도 기대.
- CES 2026에서 Boston Dynamics 경영진은 자동차의 전동식 조향 장치,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이 휴머노이드 부품과 유사성을 띄고 있어 관련 양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협력사로 채택하게 된 배경을 코멘트.

자료: 현대모비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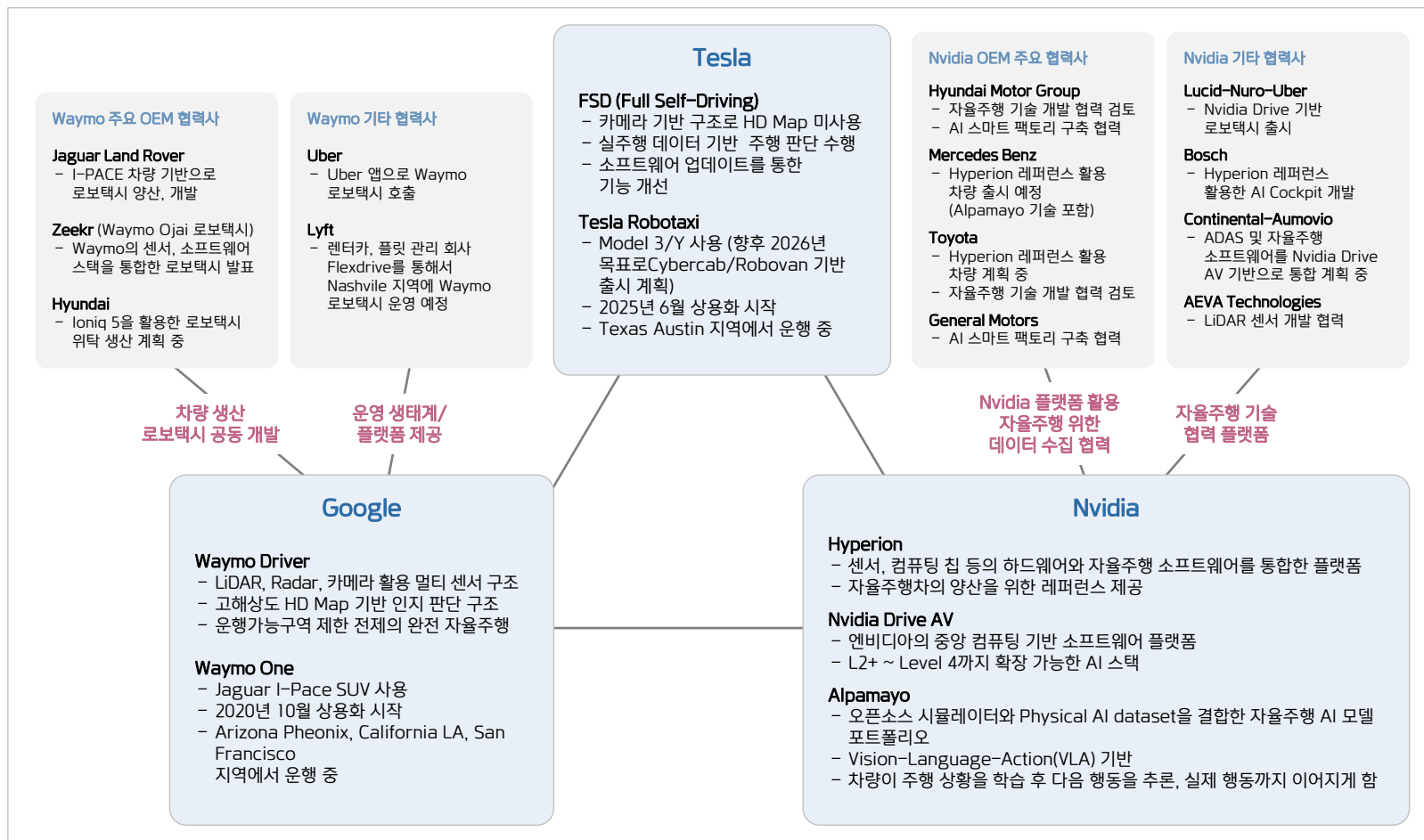
HL만도: 휴머노이드 관절 액추에이터 3종 공개



2025년 12월 개최된 Investor Day에서 신사업 진출 공식화

- 2035년 기준 글로벌 휴머노이드 관절 액추에이터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제시. HL만도는 이미 Boston Dynamics 4족 보행 로봇 SPOT 생산을 위한 관절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며 로봇 시장에서 레퍼런스 확보 중.
- 2026년 중 요소 기술 추가 확보 위한 M&A/JV 검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북미에서 휴머노이드 관절 액추에이터 양산 개시 이후 2029년부터 북미와 한국에서 양산 본격화 계획.

자료: HL만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 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Lucid-Nuro-Uber – 로보택시 공개

- ✓ Lucid-Nuro-Uber 연합은 CES 2026에서 NVIDIA DRIVE AGX Thor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로보택시를 공개
 - 2025년 12월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公道 테스트를 시작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2026년 하반기에 상용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제시
 - 향후 6년간 2만대 규모로 확대를 목표
- ✓ **Lucid:** 로보택시의 차량, 차체 아키텍처의 양산과 제조를 담당하며,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
- ✓ **Nuro:** Level 4 자율주행 스택(Nuro Driver) + 센서/자율주행 통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2025년 12월부터公道 테스트를 리드
- ✓ **Uber:** 로보택시를 Uber 앱 기반 서비스로 출시, Uber-designed 인캐빈 UX 및 운영 생태계 조성, 차량을 직접 소유하며 상용화 담당

CES2026에서 공개된 Lucid-Nuro-Uber 로보택시의 양산형 모델



자료: Tech Crunch, SEAN O'KAN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Mercedes Benz, BMW – 빅테크와의 협력이 양산 단계로 넘어간 독일

- ✓ 독일 완성차 2사, Mercedes Benz와 BMW는 SDV의 두 축을 전시 —Mercedes-Benz는 자율주행 스택, BMW는 AI 기반 UX에 집중
- ✓ 완성차 기업과 빅테크가 협업해 AI를 차량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의 성과가 양산 차량의 아키텍처에 반영되기 시작
- ✓ 두 기업 모두 OTA (Over-The-Air) 기반 구조를 채택, 향후 차량의 경쟁 구도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속도와 완성도로 이동할 가능성 시사

Mercedes-Benz – NVIDIA와의 협업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을 공식 공개



NVIDIA DRIVE AV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해 인식·판단·제어를 통합 처리

- 신형 CLA는 차세대 차량 운영체제 'MB.OS'를 최초로 탑재한 양산 모델
- 새로운 Nvidia의 DRIVE AV의 보조 기능을 통합한 AI-Defined Driving 구현
- 해당 차량에 사용된 Nvidia의 DRIVE AV는 Alapmayo의 AI 기반 추론과 전통 안전 스택(Halos)을 결합, 주행 상황에서 인간과 유사한 의사결정 능력을 제공
- 현재는 Level 2+ ADAS 탑재, OTA 구조로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해당 기술이 적용된 모델을 미국 시장에 2026년 1분기 내로 출시할 계획

자료: Nvidi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BMW –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AI Assistant로 UX 향상



Amazon Alexa+ 기반 AI 음성비서를 탑재한 신형 BMW iX3를 공개

- BMW는 Neue Klasse 플랫폼에 AI 기반 BMW 지능형 개인 비서를 탑재
- Amazon Alexa+ 기술과 LLM을 통합해 자연어 이해 및 다중 명령 처리를 지원
- 차량 기능 제어 뿐 아니라 외부 정보 질의, 응답까지 가능하도록 설계
- AI 기반 음성 인터랙션을 운전자 경험의 중심 축으로 설정, 기존 입력 중심 UI에서 LLM 기반 대화형 UX로 전환
- BMW iX3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차량 40종 발표 예정

자료: BMW,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Sony Honda Mobility, Ford – SDV 전략 구체화

- ✓ **Sony Honda Mobility:** AI 에이전트, 멀티스크린 UX, 콘텐츠 연계를 차량의 핵심 가치로 설정, SDV를 주행 기술 뿐 아닌 디지털 경험 플랫폼으로 정의하는 전략 발표
- ✓ **Ford:** Ford는 CES 2026에서 IVI(인포테인먼트)와 ADAS 기능을 통합한 SDV 스택을 공개하며, 해당 구조를 2028년까지 전 차종에 적용할 계획 발표
- ✓ SDV 전환 전략은 각 OEM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플랫폼화와 대량 양산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시사

Sony Honda Mobility – AFEELA 프로토타입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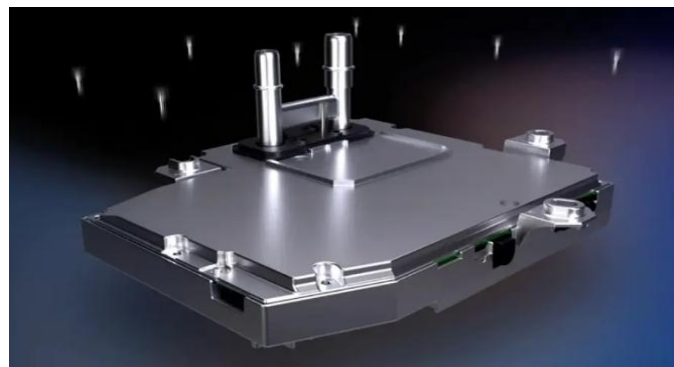


AFEELA: "Mobility as a Creative Entertainment Space"

- 공개된 AFEELA 1 모델은 **2026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객 인도 예정**
- 이후, 2027년을 목표로 Arizona, 일본에 순차적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
- AFEELA SUV 프로토타입 컨셉도 공개, 2028년경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
- Qualcomm의 Snapdragon Digital Chassis 솔루션을 차세대 아키텍처에 도입해 고성능 컴퓨팅 기반의 AI/커넥티드 기능 확장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

자료: Sony Honda Mobilit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Ford – 자체 개발, 비용 절감, SDV 대중화(Democratization)의 세 축 강조



IVI, ADAS 통합 모듈을 비롯한 핵심 SDV 요소를 In-House 개발

- Ford가 자체 개발한 중앙 컴퓨팅 모듈을 통해 **모듈 단가 10~15% 절감 예상**
- 또한, 음성비서, Level 3 ADAS 등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하며 **라이선스 기반 솔루션 대비 30%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
- Ford 타임라인: 2026년 말 AI-powered 음성 Assistant 도입 → 2027년 UEV(Unified Electric Vehicle) 플랫폼을 통해 SDV 구조를 본격 적용 → 2028년 IVI, Level 3 이상 ADAS 통합 아키텍처를 전 차종에 적용

자료: For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Bosch:** NVIDIA, Microsoft와의 협력을 통한 Digital Cockpit 소프트웨어 플랫폼 고도화
 - 기존 차량 하드웨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고성능 차량 컴퓨팅을 구현하는 SDV 플랫폼을 시연
 - NVIDIA DRIVE Orin SoC 기반으로, 전원과 네트워크(Ethernet)만 연결하면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돼 차량 내 전자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AI 기능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을 구현
 - 또한, Microsoft 365와 '모바일 오피스' 연동을 통해 음성으로 제어 가능한 Cockpit을 실제 데모로 공개
- ✓ **Forvia:** Microsoft와 협력해 클라우드, 생성형 AI 기반 인캐빈 소프트웨어 개발
 - Appning by FORVIA 플랫폼에 Microsoft Foundry Tools를 적용한 AI 기반 인캐빈 소프트웨어 협업을 한 단계 확장해 공개
 - Appning Apps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 콘텐츠, 서비스가 구동되는 모습을 실제 데모로 시연
- ✓ **Aumovio:** AWS, Nvidia와 협력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자율주행 클라우드 AI 개발 협업
 - 실운전 환경을 가상 환경에서 반복 재현하고 AI를 다시 학습시켜 자율주행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 방식을 제시
 - 추가적으로 'Surface Projection' Cockpit 기술을 시연, 고해상도 소형 프로젝터로 전면 실내 공간 전체를 디지털 캔버스로 활용한 기술 전시

Bosch의 Collaborative Digital Cockpit 데모



자료: Bos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umovio의 Surface Projection Cockpit 기술



자료: Aumovio,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Schaeffler, Mobileye, Aeva, Robosense – Tier1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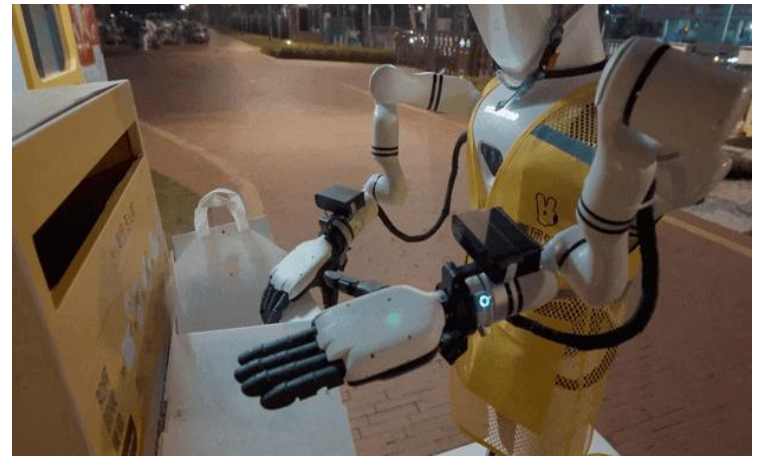
- ✓ **Schaeffler:** 휴머노이드 로봇용 정밀 액추에이터 전시
 - 해당 액추에이터는 산업용과 서비스형 휴머노이드의 반복적 작업, 정밀 동작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부품이 될 것이라고 발표
- ✓ **Mobileye:** 로봇 스타트업 Mentee Robotics 인수를 공식 발표
 - 휴머노이드 로봇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로봇 하드웨어 사업 확대를 선언
 - Aumovio와 협업을 통해 반복 작업에 특화된 저가 휴머노이드를 양산할 계획
- ✓ **Aeva Technologies:** Nvidia Hyperion 플랫폼의 레퍼런스 LiDAR로 선정
 - NVIDIA의 컴퓨팅,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과 통합해 향후 2028년 양산 자율주행 시스템용 센서 스택을 공동 구축할 계획
 - Physical AI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힌 새로운 4D 라이다 센서를 CES 2026에서 공개
- ✓ **Robosense:** 자체 개발한 배달 보조 로봇 공개
 - 이족보행 형태의 로봇은 선물 상자 포장부터 선반 적재, 운반, 박스 개봉 및 접기까지 약 20여 단계의 물류 작업을 완전 무인으로 수행

Mobileye의 Mentee Robotics 인수 발표



자료: Mobiley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Robosense의 배달 보조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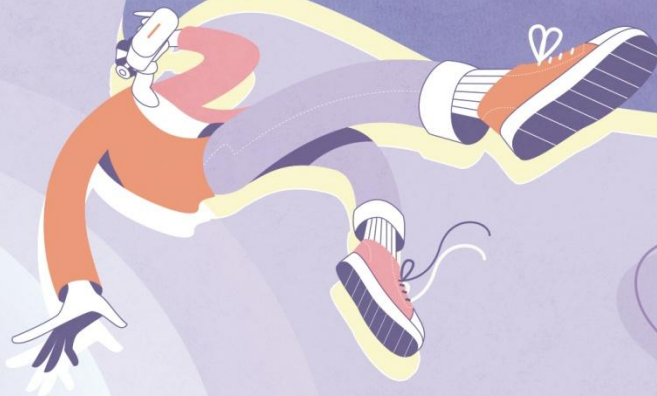


자료: Robosen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④ 미국주식

스크린 밖의 AI

| 미국주식 김승혁 ocean93@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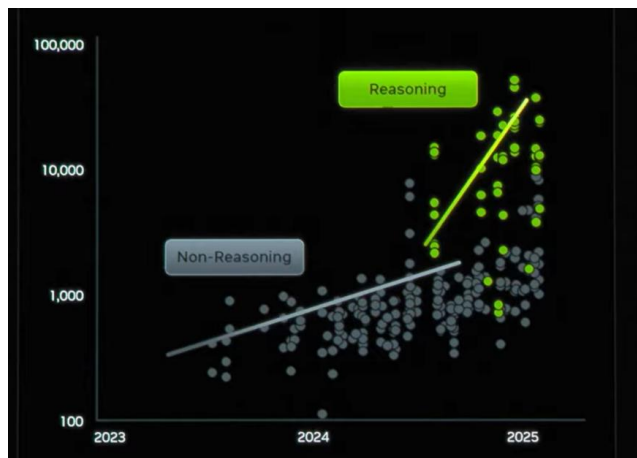


01

Agent AI + Physical AI → AI 인프라 구조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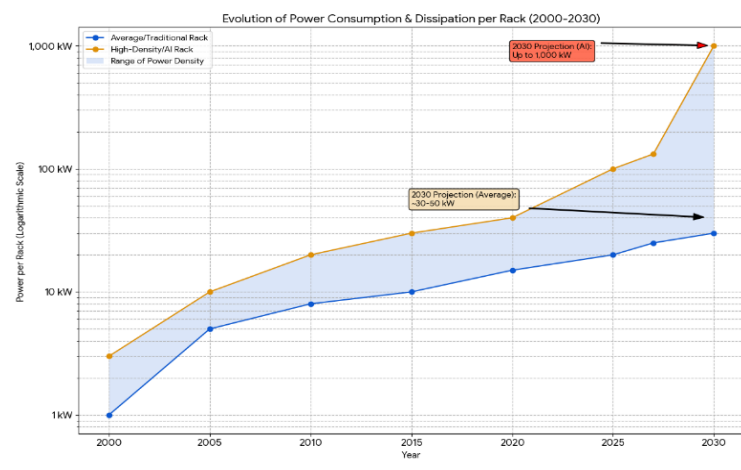
- ✓ CES 2026은 모델 거대화를 넘어 실효성과 물리적 구현에 집중하는 에이전틱 및 피지컬 AI로의 시장 주도권 이동을 증명
- ✓ 지속적인 추론과 실물 제어 워크로드에 의해 에너지 밀도 임계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기존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수용 한계를 돌파한 인프라 전면 재설계가 강제되는 상황
- ✓ 랙당 전력 밀도가 150kW를 상회함에 따라 기존 공랭 방식이 폐기되고 45도 온수를 활용한 다이렉트 칩(D2C) 액체 냉각 방식이 필수적인 산업 표준으로 정착
- ✓ 3.2톤에 달하는 랙 하중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드에서 칩까지 800V 직류(DC)로 직결하는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구리 사용량 45% 절감 및 전송 효율 극대화
- ✓ AI 워크로드 특유의 급격한 전력 변동(Bursting)에 대응하는 슈퍼커패시터 기반 하이브리드 저장 시스템이 결합되며 데이터센터가 단순 설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진화 중

에이전틱 AI의 토큰(연산량) 소모 증가 속도



자료: NVIDIA, 키움증권 리서치

랙당 전력 소비 및 발열량 추이 (2000-2030)



자료: Lennox DCS, 키움증권 리서치

02 버티브 (Vertiv, V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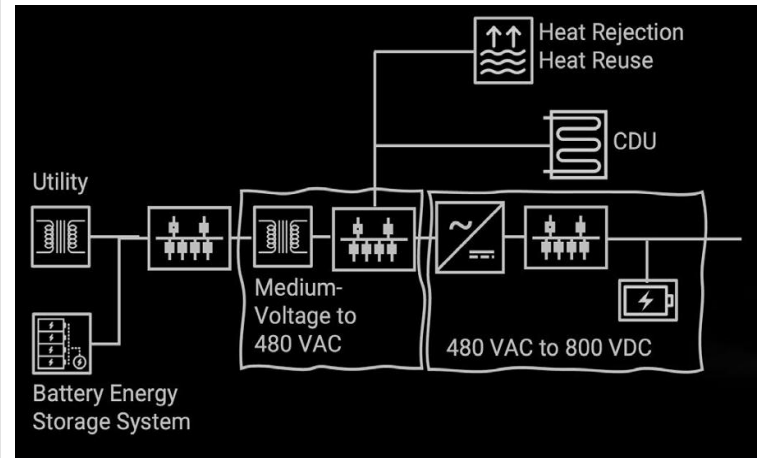
- ✓ 7,000파운드급 랙 대응 엔드 투 엔드 플랫폼: 3톤에 육박하는 초고밀도 랙의 물리적 하중과 발열을 동시 제어하는 글로벌 유일 통합 열관리 솔루션
- ✓ 엔비디아 협력 'Vertiv 360AI' 아키텍처: 차세대 GPU에 최적화된 설비를 모듈화하여 공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및 가동 시점을 50%까지 단축
- ✓ 45도 온수 냉각 기반 PUE 1.07 달성: 대형 냉동기 없이 고온 냉각수만으로 구동되는 기술을 통해 하이퍼스케일러의 운영비(OpEx)를 획기적으로 절감
- ✓ PurgeRite 인수를 통한 서비스 수익 확대: 액체 냉각 핵심인 유체 관리 기술을 내재화하여 장비 판매 이후의 유지보수 고부가가치 매출 기반 마련
- ✓ 95억 달러 수주 잔고 기반 실적 가시성: 25년 3분기 기준 역대급 수주 및 1.0 이상의 북투빌(Book-to-bill) 비율을 유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 증명
- ✓ 칩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는 표준 선점: 엔비디아와 차세대 칩 냉각 규격을 공동 수립하여 후발 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 구축
- ✓ 150kW 임계점 돌파와 D2C 시장 주도: 공랭 한계를 넘는 초고밀도 랙에 필수인 직접액체냉각(D2C) 기술을 선점해 데이터센터 상면적과 TCO 최적화 경쟁 선도

CoolPhase CDU: 액체 냉각 시스템에서 열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시스템



자료: Vertiv, 키움증권 리서치

'800V DC 아키텍처'와 '그리드 투 칩(Grid-to-C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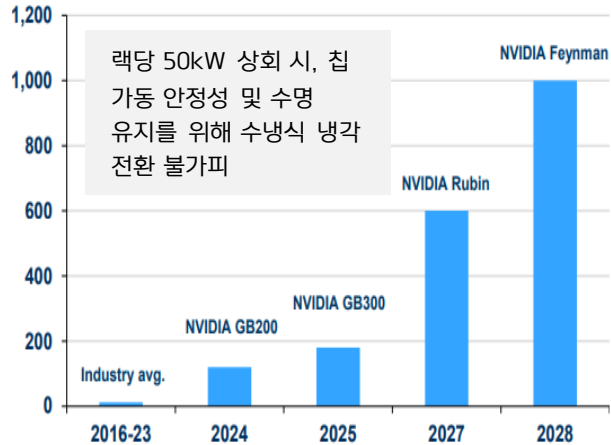


자료: Vertiv, 키움증권 리서치

03 이튼 (Eaton, E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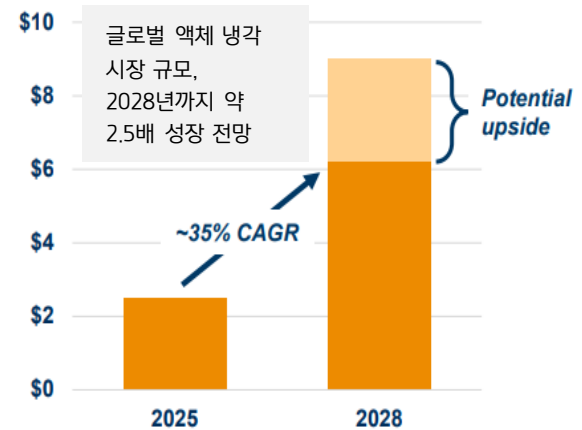
- ✓ 800V DC 아키텍처 표준 정의: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변환 단계를 최소화한 고압 직류 송전 규격을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극대화
- ✓ 구리 사용량 45% 절감 및 하중 해결: 전압 상향을 통한 전류 감소로 전선 무게를 대폭 줄여 초고중량 랙의 물리적 설치 한계 돌파
- ✓ 슈퍼퍼패시터 기반 고속 백업 시스템: AI 연산 시 발생하는 급격한 전력 스파이크를 밀리초 단위로 제어해 전력망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 Grid-to-Chip 전 과정 효율 최적화: 발전소에서 반도체 칩까지 이어지는 전력 경로를 통합 관리하여 총소유비용(TCO)을 최대 30% 절감
- ✓ Brightlayer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제어: AI로 실시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전용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지능화
- ✓ 역대 최고치 경신 중인 주주 잔고: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에 힘입어 매 분기 주주 실적을 갱신하며 장기적인 매출 성장 기반 공고화
- ✓ 차세대 Yotta급 연산 인프라 선점: AC 방식의 한계를 넘는 800V DC 전력 아키텍처를 주도하여 건설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Chip platform power levels (kW per rack)



자료: 이튼, 키움증권 리서치

Global liquid cooling market (\$bn)



자료: 이튼, 키움증권 리서치

04 캐터필러 (Caterpillar, CAT)

- ✓ 엔비디아 Thor 탑재 기반 엣지 AI: 통신이 단절된 오지에서도 장비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실시간 자율 주행을 수행하는 기술력 확보
- ✓ 5종 산업용 완전 자율 주행 라인업: 로더, 덤프, 굴착기 등 주요 기종에 자율화 기술을 이식해 거친 현장에서도 운전자 없는 작업 구현
- ✓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지능형 기계: AI가 작업 경로를 실시간으로 설정하고 안전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운영 정밀도 향상
- ✓ 스마트 플릿 통합 관리 시스템: 여러 대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업 현장 전반의 생산성 극대화
- ✓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시장 확장성: 전문 운전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며 범용 노동력 대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 ✓ 험지 실증을 통한 피지컬 AI 리더십: 승용차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입증하며 사고하는 중장비 시대의 표준 제시

캐터필러 3대 핵심 사업 부문



자료: CAT 키움증권 리서치

캐터필러 자율주행 장비



자료: 언론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05

디어앤컴퍼니 (Deere & Company, DE)

- ✓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농기계 재정: 단순 기계를 넘어 농경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물리적 AI 허브로 진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 ✓ 24시간 무인 정밀 농업 상용화: GPS와 AI 연산을 결합해 주야간 구분 없이 완전 무인 수확이 가능한 자율 주행 시스템 구축
- ✓ X9 콤바인 기반 생산성 30% 개선: 고성능 장비로 수확 효율을 높이고 곡물 손실을 최소화해 농가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향상
- ✓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정밀 제어: 작물 상태를 실시간 예측하고 주행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위성 주행 기술로 작업 품질 최적화
- ✓ 글로벌 농촌 고령화 대응력 강화: 심각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피지컬 AI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 수요 선점
- ✓ 돈 버는 AI로서의 실질 가치 증명: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농가 수익에 기여하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디어앤컴퍼니 초대형 콤바인 X9



자료: 언론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Operating Profit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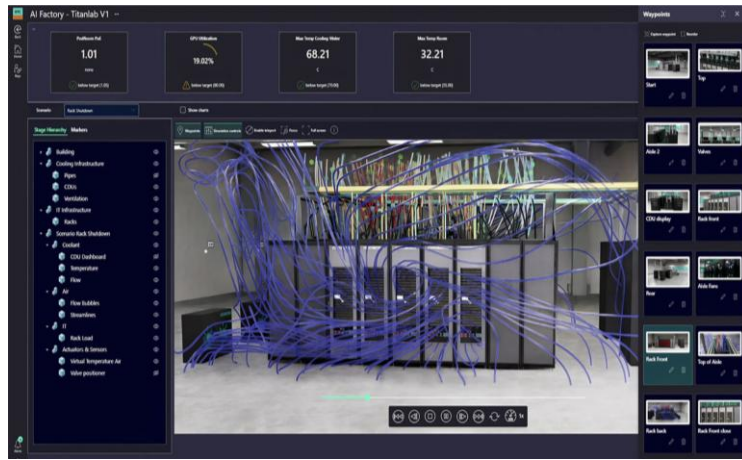


자료: Deere & Company, 키움증권 리서치

06 지멘스 (Siemens)

- ✓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제조 구현: 제품과 공정을 3D 환경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제 가동 전 완벽한 시뮬레이션 수행
- ✓ 엔비디아 옴니버스 연동 산업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대규모 시행착오를 선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오류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차단
- ✓ 사전 문제 식별률 90% 달성: 펄스코 등 실제 도입 사례에서 입증된 시뮬레이션 정밀도로 공정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생산 효율 확보
- ✓ 완전 AI 기반 적응형 공장 구축: 2026년 에를랑겐 공장을 기점으로 스스로 최적화되는 미래형 제조 시스템 표준 제시
- ✓ 글로벌 기업들의 공정 혁신 파트너: 폭스콘, 키온그룹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디지털 트윈 분야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확인
- ✓ 시뮬레이션 우선 개발 방식의 표준화: 가상 환경에서 90% 이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물리적 제조 공정의 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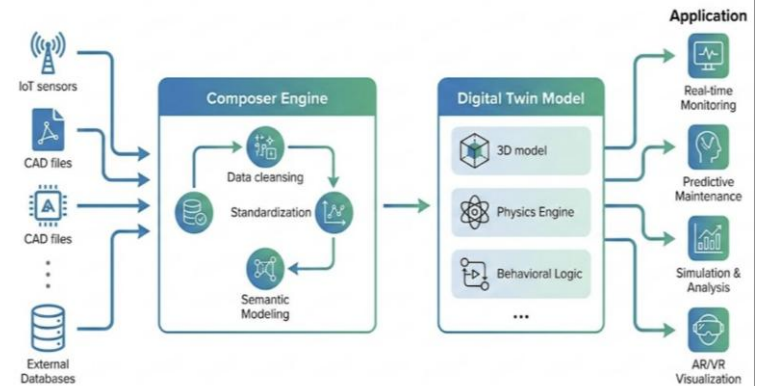
Digital Twin의 AI Factory



자료: Siemens, 키움증권 리서치

디지털 트윈 컴포저(Digital Twin Composer)

Digital Twin Composer: From Data to Actionable Model



자료: Siemens, 키움증권 리서치

07

우버·루시드·뉴로 (Uber·Lucid·Nuro) – 로보택시 연합

- ✓ 루시드 (Lucid): 고성능 전기 SUV '그래비티(Gravity)' 플랫폼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 효율과 광활한 실내 공간 제공
- ✓ 뉴로 (Nuro): 레벨 4 '뉴로 드라이버(Nuro Driver)'와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 및 샌프란시스코 실도로 주행 테스트 주도
- ✓ 우버 (Uber): 글로벌 호출 플랫폼 운영 및 승객 개인화에 최적화된 인앱(In-cabin) 디지털 경험 디자인 담당
- ✓ 센서 및 컴퓨팅: 고해상도 카메라·라이다·레이더가 통합된 360도 전방위 인식 시스템 및 NVIDIA DRIVE AGX Thor 탑재
- ✓ 승객 중심 공간(UX): 운전석 제거 및 인테리어 재설계를 통해 이동의 가치를 '개인화된 탑승 경험'으로 전면 전환
- ✓ 생산 및 런칭: 2026년 하반기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 양산 시작 및 2026년 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정식 서비스 개시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루시드(Lucid)-뉴로(Nuro) 로보택시



자료: 언론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검증 및 라이선스 사업 본격화



자료: nuro,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고지사항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1월 1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 중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